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頁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無敵大空軍目標 蘇空軍大擴充
第二次世界大戰을豫想하고 一萬臺整備完了在邇

(寫眞은 蘇新式軍用飛行機)

【伯林發】 蘇聯空軍의 事實上指導者로 指目되는 墨者로 蘇聯空軍의 威勢를 强調하고 더욱 極東에 잇어서 蘇聯空軍의 集中狀況에 關하야 左와 如히 말하엿다 信賴할만한 情報에 依하면 蘇聯空軍勢力은 陸軍飛行隊七○ 獨立飛行隊九○ 所屬飛行機 總數第一線三千二百臺 第二線一千一百臺라는 莫大한 것인데 第二次五個年計畫進行中의 最近數年內에 五千臺가 增加될 豫定으로 이것이 實現되면 總計一萬臺를 超過하는 無敵大空軍이 完成될 터로 世界의 白色政府打倒를 目的하는 第三인터나쇼날에 對하야 가장 有力한 武器가 되여 世界는 非常한 脅威에 陷하게 될 것이다 其他 蘇聯은 第二次世界大戰을 豫想하고 六十의 飛行學校에 잇어서 幾萬의 飛行家機關士及 多數의 飛行機備軍養成에 努力하고 잇는바 特히 超馬力爆擊機及長距離偵察機等에 關한 技術的進步도 顯著하고 其中에는 一千七百馬力의 爆彈을 裝備하는 飛行機도 잇다 바야흐로 蘇聯은 어느 國家로부터서나 空襲을 바들 危險가 업고 黑龍江 烏蘇里河方面으로부터 오는 日本의 攻擊도 이제는 不可能하다 蘇聯空軍의 攻擊目的은 日本 印度 이란 中歐方面에 잇는바 海參威에 三百臺乃至四百臺의 最優秀爆擊機를 集中하고 五百臺乃至六百臺를 黑龍江方面에 集中하고 잇다

獨·폰뷔로氏의暴露

米海軍大豫算
遂下院通過上院廻附

【華盛頓二十六日發】 米國下院은 二十六日 一九三五、六年度海軍豫算案을 同時에 審議한 結果 三、四의 豫算縮小에 關한 修正案을 合部否決하고 海軍小委員會査定案대로 表決치 안코 採擇하기로 決定하엿다 通過된 豫算案의 槪要는 左와 如하다

一、總額 四億六千五百二十八萬六千三百六十一弗
一、條約限度를 目標로 하는 米國海軍五個年計畫의 第二年計畫에 依하는 戰艦十二隻建造
一、將校、兵員의 增加
가、將校二千六百七十七名增員
나、兵員一萬一千名增加
다、海軍마린隊將校五十一名增員
一、海軍飛行機五百五十五機建造

天長節拜賀式 總督府內서擧行

四月二十九日 天長節當日에 宇垣總督은 午前十時부터 總督府에서 外國使臣의 賀詞를 受하고 朝鮮貴族、總督府職員及京城所屬官署長等의 拜賀式을 擧行한 後午後二時부터는 總督大妻의 主催로 例에 依하야 總督府後庭에서 在京城官民四千五百餘名을 招待하야 盛大한 園遊會를 開催하게 되엿다

加奈陀貿易調整 小委員會人選 來週幹事會에서任命

【東京電話聯合】 二十六日第五回通商審議會에서 決定된 對카나다貿易調整小委員會는 來週幹事會에서 官民雙方으로부터 人選을 行하야 廣田外相의 承認을 어더 任命키로 되엇는데 日加貿易現狀은 昨年度에 잇서 日本으로부터의 輸入額八百六十六萬六千圓 日本으로의 輸出額五千四百九萬三千圓이라는 比較할수업는 片貿易의 實狀에 잇는데 日本外務當局은 從來 屢屢카나다政府와 交涉을 進行하고 잇스나 何等 誠意잇는 回答을 接지못하고 카나다政府는 만히 팔고 조곰사려는 貿易策을 執拗히 固執하는데서 드듸여 今回日本은 通商擁護法의 發動을 適用하게 된 것이다 對카나다貿易調整小委員會에서는 輸入配定에서 輸入許可制가 豫想되는바 그리고 對카나다貿易對策의 確立으로 交涉進捗中인 濠洲其他의 諸國에 對하여도 重大한 影響을 與하는 것이라 하야 注目되여 잇다

都市와農村對立
그 現狀과 動向에 對한 一考察 ②
朴用來

二、小作料及負債利子關係

資本主義가 農村에 侵潤함을 따라 土地所有는 集中되어 小作地는 增大한다 이 私有財産制度의 內在的法則은 朝鮮에 잇서서도 貫徹되어 近年에 이르러서는 急激한 바가 잇다 最近五個年間의 統計를 들어보면

▲田畓合計小、自作地增減表

年度	自作	小作	耕地總面積에 對한 小作地의 比例
	町	町	割
昭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로 逐年自作地는 減少하고 小作地는 增加를 示하고 잇는데 昭和七年末現在 小作地는 二百四十八萬一千九百五町步로 總耕地面積의 五割六分에 該當한다 이로보면 小作人이 地主에게 納入하는 小作料는 莫大한 額에 達할 것이며 또年年히 增加하야 갈 것을 알것이다 그러나 土地所有의 集中傾向은 반드시 農業經營의 資本主義化를 意味하지 안는다 勿論歐米에 잇서서는 土地所有의 集中과 함께 資本主義的大農經營이 發達하얏스나 日本內地나 朝鮮에 잇서서는 土地所有가 集中되고 잇슴에도 不拘하고 半封建的過小農經營이 支配하고 잇다 그럼으로 小作料에 잇서서도 歐米에서 보는 바와 가티 純粹한 意味에 잇서서의 資本主義的地代가 안이고 小作農의 農業經營에 投下한 資本에 對한 平均利潤은 勿論 그 勞働賃金에 該當한 部分까지라도 分割하야 地主에게 밧치는 封建的貢納時代이다 그러면 朝鮮에 잇서서 慣行되고 잇는 小作料의 生産高에 對한 比率을 보기로 하자 昭和五年末現在調査(朝鮮小作에 關한 參考事項摘要)에 依하면 普通畓에 잇서서는 定租四割—五割一分、打租四割五分—六割、執租五割—五割五分이고 田에 잇서서는 定租三割五分—五割、打租四割九分—六割、執租四割—五割五分이다 이를 要컨대 總耕地面積의 半나마가 小作地이오 그 小作地의 小作料가 普通生産高의 五割가량이고보니 農村에서 生産되는 農産物의 約四分之一以上이 小作料로 地主의 손에 도라가는 셈이 되다 이 過大한 小作料를 바다가지고 地主는 大體 무엇을 하는가 그들은 거이 이것을 農業을 爲하야서는 使用하지 안코 都市로 흘려드려가 消費資金으로 流用되거나 또는 都市에서 遊興費로 浪費하게 된다 甚至於는 大地主는 農村에서 살지조차 안코 都市에 移住한다 이는 都市와 農村間에 諸負擔의 經濟關係도 잇스려니와 文化的施設이 充分한 都市가 農村보다 살기 조키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所謂不在地主로 昭和五年末現在調査(朝鮮小作에 關한 參考事項摘要)에 依하면 耕地三十町步以上을 所有한 大地主로서 그 所有地가 잇는 道外에 居住하는 者 即不在地主의 數는 一百十一戶이다 그들은 生活費까지도 이제는 農村에서 쓰지안코 都市에서 쓰게되엇스며 交通이 便利하야 짐을따라 웬만치 土地를 所有하야 多少의 餘裕가 잇는 者이면 一年中長期間或은 短期間 都市에서 生活하는 機會가 만허젓다 이러한 關係를 通하야 小作料의 約半은 農村으로부터 都市로 흘려드려가고 잇다

그러고 小作料關係와 가튼 事實은 負債利子를 通하여서도 이러난다 農村의 經濟狀態를 살펴보면 小作農의 窮乏은 빗을 지지안코는 到底히 農業經營이나 生計를 니어나갈수업고 多少의 土地를 所有하고 自作農도 經營하는 自作農도 生計의 困難으로 自然히 빗을 지게 되엇스며 그 所有地까지도 抵當에 넘기고 빗을 내지안코는 안되게 되엇스며 延하야서는 中、小地主조차 빗을 걸머지지안코는 안되게 되엇스니 情勢는 窮迫하야 農村恐慌이 進行됨을 따라 負債는 늘어갈 뿐으로 그 利子는 實로 巨額에 達하야 正確한 數字는 알길이 업스나 現今朝鮮農村의 負債額은 이미 約五億圓으로 推定되고 잇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곳에서 빗을 내어쓰는가 貧困과 擔保物이 薄弱한 太半의 貧農은 比較的利子가 低廉한 金融機關을 利用하지못하고 地主나 土着貸金業者에게서 高利를 내어쓰며 條件이 比較的良好한 中農以上이라야 비로소 都市的金融機關을 利用하고 잇다 그럼으로 朝鮮農民의 金融은 아직 地方的高利貸의 域을 버서나지못하얏다 할지나 近年都市的金融資本의 農村進出도 漸次顯著하게 되엇슴은 看過할수업는 事實이다 只今地方的、都市的 또는 各種의 機關別農村金融狀況에 關한 適確한 數字를 갓지못하얏슴은 遺憾이나 다음에 本論에 直接的으로 關係가 잇는 都市的金融機關의 農村貸出狀況을 不充分한 統計나마 들어보기로 하자 爲先 農村庶民金融機關이라 하는 村落金融組合을 보면 金融組合聯合會에 統一되어 資金關係를 通하야 朝鮮殖産銀行과 密接히 聯結되어 잇는데 昭和十年二月末現在 組合數는 六百三十一 그 金融網은 農村到處에 벌려저잇는바 貸出高는 一億二千二百二十五萬六千三百三十九圓에 達한다 그리고 不動産金融機關의 兩大覇王으로서 朝鮮農村에 君臨하야잇는 東洋拓殖株式會社와 朝鮮殖産銀行을 보면 東拓의 農村關係貸出高(拓務統計 東拓의 貸出現在高地方別資金別表에서 朝鮮農村關係項目만을 摘記)는 昭和八年十二月末現在

土地改良及開墾	六、○六三、二九六圓
水利事業	三六、四九四、四一二
農事經營	二四、○五八、五五七
殖業	七、三三○、九四四
果樹栽培	一、五八八、五一一
畜産業	七三○、五二六
自作農創定	一六、六三○
移住貸付	五三九、四○五

이오 殖銀의 總貸出高는 昭和十年二月末現在 三億七千五十七萬圓인데 그 大部分은 土地改良水利事業其他農業資金으로 貸出되엇다 이로 此等金融機關이 朝鮮農村에 扶植한 金融勢力을 大略짐작할 것이며 이 機關이 아무리 農村金融에 有效하다할지라도 全體的으로 보아 結局都市에 對한 農村의 貢納을 意味한다 이러한 都市的金融機關의 農村貸付利子는 地主또는 農村土着貸金業者의 高利貸金利子의 一部와 아울러 大體로 小作料와 마찬가지로 或은 直接的으로 或은 間接的으로 都市로 흘려드려가나니 이는 農村에서 生産된 價値가 그와 對等의 價値를 賦與되어지업시 都市에 吸收되는 것으로 이 金利關係를 通하여서도 農村疲弊의 反面에는 都市의 繁榮이 促進되고 잇다 (續)

索敵戰鬪兩艦隊混成 大攻防戰實施
米海軍演習主要問題

【華盛頓廿六日發】 마침내 月末부터 米國海軍의 西北太平洋에 잇서서 大演習에 關하야 여러가지 風說이 傳하야 特히 日本朝野가 此를 注視하고 잇다는 報道는 只今부터 米國海軍當局에 衝動을 與하야 當局者는 極力右演習이 單純히 防禦力의 試驗만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說明하야 스탠리海軍作戰部長은 米國海軍은 今回의 演習에 잇서서도 日本本土로부터 二千哩以內의 距離에는 絶對로 드러오지 안는다는 旨를 言明하야 誤解를 避하려하고 잇다 演習의 規模形態에 關하야 確實한 智識을 가진 것은 索敵戰鬪兩艦隊及 本省首腦部의 數名에 不過하고 一切秘密에 附하엿는데 一般으로 信하는 바에 依하면 本演習中主要問題로 되는 것은 索敵戰鬪兩艦隊를 混成식혀 此를 靑黑兩軍으로 分하야 黑色攻擊軍이 알라스카海岸乃至太平洋北西岸方面奪取를 目的하야 攻擊을 進行하는데 對하야 靑色防禦軍이 防禦에 努力하는 模擬戰鬪이다

宇垣總督渡東前 南朝鮮方面視察

宇垣總督은 渡東하기 前에 國立癩療養所小鹿島更生園을 視察하기로 되엇는데 同時에 慶南方面의 農村振興狀況을 視察할 터인바 그 時期는 五月中旬이 될 豫定이다

橫須賀鎭守府 觀兵式擧行

【橫須賀電話聯合】 橫須賀鎭守府管下의 特命檢閱을 終了하는 二十七日에 海空軍의 威力을 자랑하는 觀兵式이 特命檢閱使 軍事參議官大將에 依하야 午前十時부터 橫須賀練兵場에서 ○○○○名은 勿論 空中分列式을 行하엿다

滿洲國皇帝陛下 一路國都에御歸還

【奉天廿七日發聯合】 滿洲國皇帝陛下의 御歸還御列車는 廿七日午後零時五十七分 奉天驛에 到着하엿다 플랫홈에는 日滿軍幕僚를 비롯하야 日滿軍隊、學生生徒 各團體代表者等의 奉迎裏에 陛下께서는 最後部御列車로부터 奉迎者에 御答禮를 下賜하시고 陛下께서는 奏樂裡에 同五十八分 御發車 一路國都로 御歸路에 올으시엿다

日本品壓迫國엔 報復手段採擇
通商審議委員會決定

【東京電話聯合】 海外諸國의 日本品輸入防遏手段에 對抗할 方策을 硏究하기爲하야 二十六日通商審議委員會는 各委員間에 隔意업시 意見을 交換한 結果 日本品을 不當하게 差別하는 諸國에 對하여는 日本도 報復手段을 講究하고 特히 카나다聯邦의 不法措置에 對하여는 일즉부터 交涉을 繼續하고 잇섯스나 아즉 解決의 曙光이 보이지 안흠으로 關稅定率法第四條第六十號及今回議會를 通過한 通商擁護法 傳家의 寶刀의 威力을 發動케 하기로 意見一致되여 外拓商指名의 委員으로서 委員會를 組織하야 具體的方策을 究明하야 成案을 어더 再次審議會에 올녀 通商擁護法發動의 前提手段으로 關稅委員會에 附議하야 然後에 斷乎한 手段을 發動케하기로 되엿다

希臘前皇帝 倫敦으로 英官憲充分警衛

【電通倫敦二十六日發】 二十五日 復辟宣言을 發한 希臘前王조지陛下는 二十六日午後郊外로부터 汽車로 倫敦市에 入하시엿는데 希臘急進共和系分子의 妄動에 依하야 不測의 事態가 發生할 것을 憂慮하는 英國官憲은 陛下의 警衛에 萬全을 期하기爲하야 停車場에 正服警官多數를 派遣하야 警衛에 努力하엿고 今後嚴重警戒中

佛蘇援助條約
蘇聯政府의新訓令에依하야 一時停頓되엿든狀態遂解決
二十七日假調印

【巴里二十六日發聯合】 巴里駐箚蘇聯大使포촘킨氏는 二十六日外務省에 라발外相을 訪問하고 本國政府로부터 온 訓令에 基하야 佛蘇相互援助條約案에 關한 蘇聯政府의 見解를 說明하엿다 右는 條約案에 關한 折衝이 最後에 이르러 規定條項의 自動的發動規定에 關하야 意見의 一致를 보지못하야 停頓狀態에 陷하게 된 것인데 佛蘇兩國政府間의 新訓令에 依하는 最終的條約成文起草의 困難도 除去된 模樣으로 마침내 明二十七日 라발外相과 포촘킨大使와의 間에 假調印을 完了하게 되리라고 본다 會見後포大使는 欣然히 말하기를 라발外相과 會談한 結果 援助條約案에 對하야 完全히 意見이 一致되엇다 條約案文은 二十六日夜 專門委員의 손으로 最後的으로 決定하고 明日은 法律顧問을 帶同하고 外務省에서 라발外相과 會見할 터이다

復位報道를一笑

【倫敦廿六日發聯合】 希臘前國王게오르기오스二世는 侍從武官을 帶同하고 二十六日夜 巴里로부터 倫敦에 御到着하시엿다 前國王은 復位要請을 受하고 左와 如히 言明하엿다
巴里에서 王黨派代表가 秘密會議를 開하엿다든가 余가 會議를 司會하엿다는 報道는 一切事實無根이다

三警察官表彰

警務局에서는 二十九日天長佳節에 際하야 昨年八月二十四日土匪와 格鬪하야 殉職한 平北警察部 [illegible] 氏와 [illegible] 三警察官의 勳功勞를 表彰하기로 되엿다

河北現銀輸出禁止

【電通天津二十七日發】 連日現銀이 輸出되야 銀相場이 騰貴함에 鑑하야 河北省政府는 二十六日로 되어 現銀輸出禁止令을 發布하엿다

獨飛行機國境飛翔 佛國航空省重大視
發見하는대로直時射擊墜落식히라고 佛當局非常命令公布

【巴里廿六日發】 獨逸의 怪飛行機가 佛國國境要塞地帶의 上空을 飛翔하기 最近이 미四回에 及하엿슴으로 佛國航空省에서는 此를 重大視하고 佛國政府의 許可를 經由하지안코 佛國國境을 飛行하는 外國機가 發見되는 대로 佛國軍戰鬪機는 直時 此를 射落하라는 非常命令을 發하고 此를 警告公布하엿다

中樞院會議

第十六回中樞院會議는 二十六日 午前九時半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議長今井田政務總監의 總裁下에 開催 宇垣總督以下 牛島書記官長 係局課長 副議長朴泳孝侯 閔丙奭子 尹德榮子 李允用男외 三顧問을 비롯하야 中央地方各參議等 出席者六十餘名에 達하엿다 劈頭宇垣總督으로부터 別項要旨의 訓示와 今井田總監의 此를 敷衍하는 訓示를 行하고 各局長官房課長의 演示가 잇고 午前의 日程을 終了하엿다 午後는 今會의 眼目인 心田開發、民心善導策의 諸問案에 對한 答申이 開始될 터인데 今回부터 特히 通譯을 廢止를 斷行하야 新例를 지은 것은 注目된다 그리고 同會議는 二十七日까지 二日間 繼行할 豫定이다

本紙夕刊六面

八面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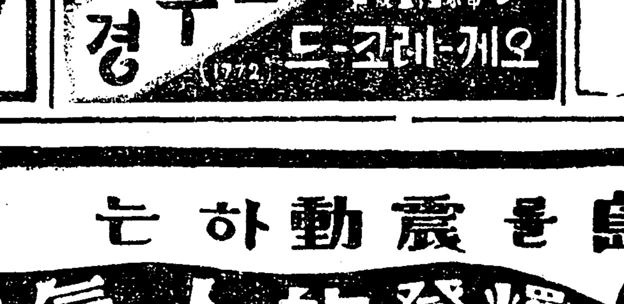
五·五·三의 比率은 絶對로 確保함이 必要하다고, 빈슨海軍委員長이 言明。
◇
말만하면 소용잇나、海軍軍縮本會議를 빨리 열고 입씨름을 하여보는 것이 上策。
◇
『아리안』系人種이 아니면 新聞記者도 不許한다고、이러케 純粹獨逸主義를 쓰다가는 亞細亞族結婚도 禁할지 아니할까。
◇
伍長으로 大統領이 된 一世의 天才兒 『히틀러』君의 優生學的門戶가 엇지 아리 좁은고。
◇
獨立을 압두고 比律賓에는 婦人參政權附與問題가 새로운 話題거리
◇
旣往이면、남이 하는 일은 다 해보자는 것이 現代人의 欲望。

內閣審議會
恒久機關化는 內閣行動牽制
樞府側에서政府側을牽制
注目되는審査趨移

【東京電話聯合】 內閣審議會設置에 關하여는 樞府側의 意見으로 政府는 從來의 言明에 反하야 此를 臨時的機關으로 하드라도 關係官制는 樞府에 諮詢치 안으면 안된다는 情勢인데 此는 明確히 政府가 樞府에 屈服한 것이라 하야 內閣審議會及調査會의 推移는 極히 重視되게 되엿다 卽 樞府審査委員會에서는 從來議長、副議長은 容易히 發言치 안는 것이 慣例이엿스나 廿六日審査會에서는 平沼副議長으로부터 內閣審議會와 如한 重要國策決定機關을 恒久的機關으로 制度化할 境遇는 健全한 諮問機關이라할지라도 內閣의 行動을 牽制하는 것은 明白하다 其結果는 責任內閣制의 本質에 抵觸하야 責任問題以外에 다시 國策決定의 內閣을 設置하게 되는 것은 明白하다 따라서 非常時局에 잇서서 이러한 機關을 必要하다고 하야 이 非常時局이 何時까지 繼續될는지 不明하여 다음內閣의 行動을 制裁拘束하는 結果를 招來해서는 안된다고 信함으로 內閣調査局은 別問題로하고 內閣審議會는 臨時的機關으로 하는 것이 如何하냐고 政府에 肉迫하엿다 此에 對하야 岡田首相은 主旨는 그러타고 答하야 明確한 答辯을 與하지 안엇슴으로 樞府側에서 協議한 結果 審査報告書에 內閣審議會는 臨時的機關이라고 諒解하야 政府原案을 承認할 것이라고 認定한다는 旨를 明記하야 贊成하기로 하고 此에 對하야 政府는 重大問題이나 內閣審議會를 設置한다는 見解로 樞府側의 意見을 尊重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富井委員長은 來入日樞密院本會議에 提出할 審査報告書起草에 際하야 大體로 審議會와 調査局의 組織及運用에 關하야 二、三重要點에 關한 政府의 明確한 所信을 確實케 하기로 하고 此에 對한 政府의 答辯은 審議會官制關係勅令案에 希望決議가 附加되엇는가 안되엿는가의 分岐點이 된다고 보나 結局右와 如한 希望意見을 附하야 原案을 承認可決하리라고 豫測된다

◎自動車運轉手希望者의大福音!
好機不再來、躊躇는一生의損!!
現下의 趨勢는 스피-드로 飛躍하는 自動車의 萬能化에 따라 社會는 自動車界의 絶頂의 希望으로 解決된 本校의 努力은 果然如何한가? 各種不景氣에서 失敗에 종을 먹은 분들도 本校에 다시 入學한 그분들도 모다 成功의 月桂冠을 잡으라는 諸君은 必히 本校를 參觀!!
本校의 特典
一、入學金免除 實習費大割引 寄宿費低廉 學用品無代給與
一、自動車學科無限責任教授(講師前南大門自動車學校專任教授某先生)
一、自動車運轉責任教授、合格保證(講師各自動車學校及工廠學校專門技師十餘人擔任)
一、滿洲語無料教授(講師中國人曲俊明先生)
一、改訂自動車法規에 對한 講話(本校顧問先生)
一、校舍新築擴張 男女共學 實習場擴大 大寄宿舍完備
一、教授用自動車大量購備(高級車オクランド、エセックス 新シボレ、三五年型フォード 三四年型フォード(京畿道試驗車)其他各種試驗車完備オードバイ等)
鮮滿自動車學校 男女生徒募集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五五番地(電話本局四九一番)

金線ミルク
各藥店에서販賣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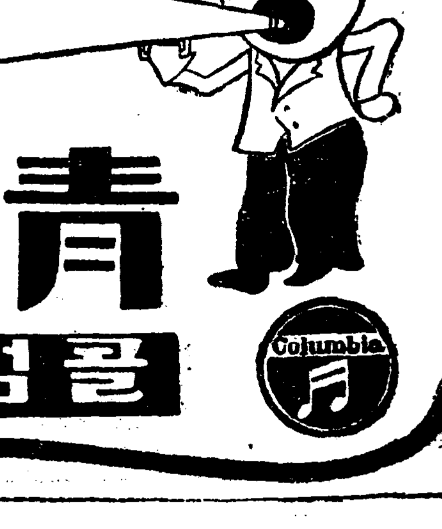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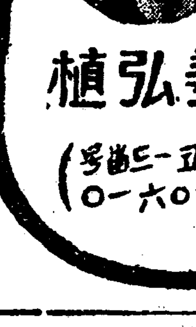
申不出氏作 新作 스켓취 서울구경 오케-레코-드


사랑은품파리군

外務社員募集
時計、蓄音機 月收販賣에 從事 參拾歲以上 夫婦同居者로서 保證金三百圓及市內確實한 保證人貳名을 要함 希望者는 履歷書携帶午後一時부터 三時까지 本店又는 京城府職業紹介所로 來談
京城府本町二丁目 村木時計店 電話本局四七一·四七二·四三七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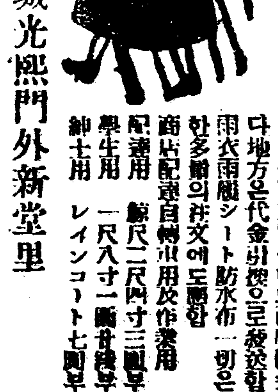
セブランス醫專病院

檢眼無料 京城驛前
檢眼 擔任 本校眼科教授 本院眼科長

半島를震動하는 爆発的人氣!!

鬼才 金駿泳作曲
靑春打鈴

姜弘植
(레코-드番号 四○六○)
콜럼비아레코-드
Columbia

好職業

(カタログ進呈)
新案特許·乳母車用 折疊乳母車·乳母車 小兒自動車·三輪車 部分品及製品一式
製造發賣元 米澤屋商店
名古屋市東區駿河町二 電話東(4)5671番 振替名古屋17041番

雨衣

京城光熙門外新堂里
朝鮮防水布製造所
博覽會場內에賣店이잇습니다

降雨는南北各地에 雨量은大體로洽足

가물로 보리는영향잇섯스나 春耕에는모다順調

추경과흙당하야 각지에 가물어드러 하엿다 도처에서물이부족하다고 소동을 하는중이십륙일밤부터 비는거히 전조선적으로 내리엇는데이번 비가 농사에미치는 영향에대하야 총독부농산과원은 다음과가티 말

「일전십오일의비에부족하든경북 경긔도 충남황해의 네도의보리 농사에는 이번비로 흡족하게되엇다 그럼으로 금년보리농사는 작년의 풍작보다는 감수로결국 일천만석정도의평년작이될터이다 그리고서조선지방에 가물이 드럿다고 야단들치지만 아즉벼 농사에는 념려업슬듯하다」

尹氏勤續表彰

【長湍】 김긔도장단군동상 금융조합(東湍金融組合) 윤희병(尹熙炳)씨의 근속 십오주년표창식은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사일 동조합정긔총회 석상에서 삽호(三戶)씨 사회하에 성대히 거행하얏는데 전긔윤씨는 동조합창설이래 십륙년간을 부단히 동조합발전에 로력하야그공적 이불소할뿐안이라 일반 사회사업 에도공헌이다대하다고한다

清水、旅客飛機 海上의遭難無疑

郵便物이海上에漂着되여 方今機體를搜查中

【電通新義州電話】 대고산(大孤山)연안에서발견한 우편적행랑은 이십륙일아츰 대련(大連)을출발하야 행방불명이된 려객기에탑재한 대판행(大阪行) 비행우편물인 것이판명되고 다시동지부근 해상항행중의선박은 표류중의 항공우편물을 발견하야 벌서청수긔의해상조난은 확실하게되얏다 그럼으로이십칠일은 일은아참부터 동지해상을중심하야 대수사를 개시하기로하얏다

【遞信局廿六日午後十一時入電】 사건 발생후 대고산(大孤山)으로부터 들어온정보에 의하면이십륙일 오전팔시경대대고산을상거하기 팔키로의근해에 출어중의 만주인어부가 비행긔의폭음을 들어지만은 기영(機影)은보이지안코 폭음은 그냥서방으로사라저 바리엿는데 오후일시경에 대록도(大鹿島)부근 항행중의선박이 표류하는 항공우편적행랑일개를발견하야 곳동지 경찰관에게출한것을 취조한바 적행랑재중대판중앙국행 항공우편물로서 대련발 청수기(清水機)에 답재한것이 분명하게되얏다 이로써청수기는 대고산부근해에서 조난한것이라고판즁되엇다 더욱이 십칠일아측공 수회사에서 는공수전찰을하는외에사원을 대고산에 파견하야 만주항공회사의웅원을어더해상수사를개시하얏다

多數船舶動員 海上으로搜查

【電通新義州電話】 청수(清水)긔의 행방불명으로 초조한하루밤을 새운 신의주비행장에서는 이십칠일아참부터 일긔가 험악한데도불구하고 묘긔(僚機)를 수색코서청목(青木) 비행사는 오전여섯시반에 용감히공중수색비행을 시작하엿다 이비행긔는 청수긔조난지점이라고 생각되는 대고산(大孤山)부근에착륙하야 그곳에 주둔중인 만주국해변경찰대의 원조를 구하야 극력수색하는중인데 아모단서도어지못하고잇다 그런데 일긔가 조치못하야 공중수사는 불가능할 모양이나 일만 경찰당국에의뢰하야 경비선과타 연안에잇는선박을 총출동식혀 해상수색을 하고잇다

臺灣震災에 同胞는無事

本社의慰問에對하야 朝鮮人協會서返電

지난 이십일일 아침여섯시경 대만(臺灣)대북(臺北)지방을 중심으로 그린근수개군하에 강렬한지진이 일어나서 사상자 구천여명을 내이고 파괴가옥이 무려이만여호에 달한다는 소식을듯고 본사에서는 피해지의상항 그중에도 재류조선동포의 안부를념려하야 그자세한 소식을 한대라도 밧비알고저 고대북조선인협회(朝鮮人協會)에 대하야 위문전보를 치는동시에 조선동포의 피해상항을 조회하엿든바 이십칠일에 전긔조선인협회로부터 다음과가튼 전보가잇섯다 대만진재지에서의 조선인의 피해는업다 다음에 상세하상항을통긔하겟다

◇사진은마라손선수들의경주

赤色救援會의 金浩哲等四年

咸興法院에서言渡

【咸興】 지난십구일함흥법원에서 최고사년 최하이년반의 구형을바든적색구원회(赤色救援會)사건김호철(金浩哲)등삼명에관한언도는 이십륙일 오전열시반 함흥법원에서미전판사주심 대판검사의 간여로개정되여 미전판사로부터 아래와가치 전부구형대로의 언도가잇섯다

▲金浩哲 四年 ▲金樹興 四年 ▲李廷翼 二年半

生活難으로飲毒

이십륙일 오전다섯시 시내남대문통(南大門通)사정목 삼번지 생선장수 장식(張釗)의집에 고용인으로잇는 은히수(殷熙秀)는 자기가 거처하는방에서 자살을할목적으로 초산(醋酸)을 먹고고민하는것을 주인이발견하고 즉시부근세부란스병원으로 데려다가 응급가료를한결과 생명은 건지게되엇는데 원인은생활난을 비관한것이라고한다

嬰兒壓殺婦被逮

【英陽】 영양군수비면 신원동 오십사번지 英陽郡首比面新院洞五四)황행이(黃行伊)(三一)라는녀자는지금으로부터 칠년전에과부가 되여이래공규를 직혀오다가 소화구년봄부터 동리에사는리응화(李膺和)(三一)와 사랑을매저 오든바 지난십월에 여아를분만하얏스나 세상사람의 이목이 부그러워 즉시압살한것이경찰에 탐지되야 실황답사경찰서에체포취조중이라한다

仙症고친다고 칼로睾丸을찔러

【金泉】 김천군대항면 향천동(代項面香川洞) 려팔철(廉八喆)(三○)은얼마전부터산증(疝症)에걸리여 신음하든중산증이란고환(睾丸)속에거품이들어병이되엿다는무지한 말을밋고그거품을뽑아내면병이나흐리라는 생각으로 지난이십삼일 오후칠시경면도로자기고환을찌개여 매우위독상태에 빠저잇슴을집안사람이발견하고 즉시 도립김천의원에입원하야 응급수당을 가하엿스나 이십사일오전열한시에 드듸여 절명되고말엇다 한다

京城商工聯合運動 各方面寄附遝至

金員과物品이山積

▲金二百圓 京城電氣株式會社 ▲金七十圓 朝鮮殖産銀行 ▲金五十圓 東一銀行 朝鮮銀行 三井物産京城支店 京城紡織會社 ▲四十圓 漢城銀行 朝鮮商業銀行 ▲金三十圓 海東銀行 朝鮮信託會社 ▲金二十圓 金熙俊商和信 朝鮮實業會社 ▲金 三越支店 丁子屋 ▲金十圓 張熙元 永保合名會社 ▲金十圓 天香園 安仲商店 鮮一紙會社 大西鮮 尹璿善 ▲金二十五圓完美製靴店 ▲金五圓서울蓄音器商會 東一銀行西大門支店 徐武淳 泰盛商會 梁楨煥 李進雨 晉晉齊 九册商會 京城化學工業所 鮮滿ブローカー會社 ▲金三圓三洋社 漢一藥房 鮮光印刷會社 元興帽子店 廣昌商會 東一商會 歐米式洋服店 ▲金二圓明五商會 世界堂眼鏡店 昌信商會 昌信商會 德世洋行 三國商會 中央모다 二五商會 德和商會 三能商會 三和皮革店 相信紙物鋪 三鶴店 吳一承 池盛周 金塔鐘 朴德裕 鄭起燮 我國商會 五六商會 東亞醫院 三成自轉車店 第一洋靴店 自作洋靴店 合資自藥部 安福商店 徐相協 鷄林商會 東西皮革商會 ▲金一圓 半島萬年筆社 成信商店 大興商店 金石商會 佛米式洋服店 德泉商會 ▲一圓式藥商會 京和商會 永昌堂藥局 國産商會 洪信洋服店 六三商店 高永勝 相信商店 任錫俊 李聖寔 强水根 金洙煥 ▲紋昌商會 絨氈床一件▲崇學基運動具店 단추三打▲서울美工社 美髮一個▲青山藥局 青山商二百個▲金基漢金物商 함석大也三介▲安慶昌金物店 手提金庫一件▲福成商店ニッケル鏡一打▲鍾路百貨店新碗一打▲光信商會匕箸五件▲日興商店 鏡臺一件▲韓興商店 石二打▲二打▲晋信堂 木枕鏡一介▲鍾路藥局藥一瓶▲永興德鉛筆十介▲金石商會支店 女고무靴五足▲永昌書館 書籍二十部 ▲博文書館 書籍五十部 ▲東亞運動具會社 理髮器具十丁 ▲晋信洋服店 學生服二着 ▲新元商店 手鏡半打 ▲李德裕 東洋木二疋 ▲金泰煕 東洋木五疋 ▲永昌商會 白銅灰皿一個 ▲東洋大學堂 書籍十部 ▲第一洋品店 石鹼二打 ▲勝一紙物舖 便箋紙十册 ▲三鉉藥房 沃度精一封度 ▲アタチ正和堂 服紙三件 ▲大元堂帽子鋪二個 ▲福茶會 電氣다리미一個▲信商會 銀盃二個 ▲女婉時計店 帽子綿二個 ▲韓國洋靴店 小兒靴五足 ▲德永商店다오루五打 비누五打 ▲東亞金銀商會 正宗盃一雙 ▲裕昌商會 正宗盃三個 ▲大昌洋服店 小兒服三着 ▲信用商會 東洋木七疋 ▲五福堂藥局 石鹼一打 ▲德興書林 書籍二十部▲東洋洋品店 靴下五打▲鍾南紙物舖 卷紙五十個 ▲吉星紙物舖 便箋紙一百册 ▲京城帽子店 烏打帽打 ▲普仁堂藥房 神丸二百包▲金山商店 銀단추五個▲金眼堂 寫眞板二枚▲金潭商會 재떠리一百個▲廣州動東洋木二疋▲瑞榮商會商品二件▲瑞昌商會東洋木三疋 ▲三洪金物店 水筒二個 ▲和光書林 書籍三十部▲瑞源商店라올一打 ▲孫合煥 烏打帽二打▲廣韓書林 尺牘十部 ▲東亞婦人商會 비누十打 ▲大昌洋靴店 運動靴十足▲京城府尹優勝컵一個 以上孫氏

以上合計金額八百七十一圓也

女子教育卅年 進明女高記念式

금이십칠일에성대하게 勤續教員四氏表彰

시내창신동(昌信洞)에잇는진명녀자고등보통학교(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에서는 이십칠일오전십시에 동교교정에서 개교삼십년기념식(開校三十年紀念式)을예정과갓치 성대히거행하얏는데 동교는광무(光武)십년사월에 현교장 엄준원(嚴俊源)씨의 설립으로 개교하야 이래삼십년동안에 본과(本科)에 구백이십칠명 보통학교(普通學校)와 긔예과(技藝科)녀학원(女學院)등 부속긔관에서 륙백칠십삼명의 졸업생을내여 조선녀자교육계에 공헌이 만헛스며 동긔렴식중에는십년이상 근속직원(十年以上勤續職員) 표창도행하얏다하며 동시일시경에 무사히 폐식하고 이여서 축연(祝宴)과전람회(展覽會)등이 잇섯다하며 십년이상 근속표창을바든직원은다음과갓다

校長 嚴俊源 敎諭 李世楨 敎員 朴命同 仙波武一

(사진은 근속한선생 우로부터 엄교장 리세정씨 박명씨 선파씨)

턴넬內露宿中 三家族重傷

다섯가족중에두명은무사 京義線宣川附近에서

안동(安東)발정주(定州)행려객제 삼십이 렬차가 이십륙일오후 십분 경의선 선천(宣川)로하(路下) 간(平壤起點四一 키로三○米)늘진행하야 선천 턴넬에다엇슬때에턴넬입구의 선로상에 사람을 발견하얏슴으로 급히 정거하얏지만밋지하고 턴넬안에 들어가게되유세명을 륵상하고 겨우 정거하얏다 다시 전방에 인영(人影)을발견하얏스나 검은연기때문에 판별을못하고합수업시동렬차는여행운전하야 선천역까지 돌아가서약사십분이나늣게기달녀봉전(奉天)행제칠렬차노조미를보내고발자하얏다 전기턴넬안의사고는평북정주군서부면서부동(定州郡西部面西部洞) 신봉귀(申鳳奎)(三一)가 일가 오인을끌고 선로상에서 자리를깔고저녁밥을 먹고하로밤을 턴넬안에서 발키려고한것으로 이러낫다 별과 신봉귀(申鳳奎)는 우와골절 외인 편발구락절단 동인처 최씨(崔氏)(三一)는 전안부에타박상 장남신용시(申用市)는 외인발이 끈어지고 각각중상을 당하고 대도내에남어잇는차남 신용업(申用杰)장녀 신용백(申用伯)은 다행히 이상이업는데 이런무모한 일가족을 보고철도당국도어연하는바이다

昌城에山火

【新義州】 지난이십사일오후하시 평북창성군신창면(昌城郡新倉面) 비룡산(飛龍山)에는큰산화가니러나경찰서와 부락민이 총출동하야 진화에 노력하얏는데소실면적이이십정보에달한다고한다

天氣豫報

曇一時晴

低氣壓은 沿海州、滿洲及北朝鮮沿岸에잇서 모다東南中이고 高氣壓은 千島方面으로부터日本을經하야 그尖端은 半島에突出하고잇다 全朝鮮이大槪호리고 京仁地方과 北東岸에는 비가오다 明日은흐릴터이다

昨日最高	二三、六
最低	一三、三
今朝最低	八、八
今日正午	一〇、六

釜山에도火災 五棟全半燒

【釜山支局電話】 이십륙일오후다섯시십분경 부산(釜山)부부평정(富平町)삼정목 조선려관 창고에서 불이나서 그근방음식점잡화상점등 전소이동삼호와 반소이동이호와 그외창고일동을 태우고동다섯시 삼십분경에 진화하엿는데 손해는약팔천원가량이라 한다 원인은 소관부산서에서 조사중으로아직상세치 안하나 전긔조선려관창고에 싸허잇는나무가리에 누가담배불을 떠러트린데서 난듯하다고한다

第一回全朝鮮 男女自轉車競技大會
時日 四月二十八、九日午前十時부터
場所 京城運動場
主催 朝鮮日報京南支局
後援 朝鮮自轉車選手協會

今夜
東洋的力士群總動員!
全朝鮮力技選手權決勝
今廿七日午後八時、鍾路青年會後庭
入場無料 但場內整理費十錢

金化西面大火 廿戶의部落全燒

불길이맹렬하야가구도전실 百餘災民路頭彷徨

【金化支局電話】 이십륙일오후한시경 강원도금화군서면상림리(金化郡西面上林里)김복준(金福俊)집에서 불이나서 때마침맹렬히부는바람에 그부락이십여호 전부를태우고 급작히쪼저온 경찰서원과 소방조원및 동민들의 노력에 의하야겨우 밤여덜시반에 진화되엿는데원체바람이 몹시부러서 가구등 하나도건지지못하고 리재민일백여명이 길가에울고 헤매는 모양은 눈물업시는 볼수업는현상이다 전부락이십호외에 산도만히 탓다로 손해도상당할모양이다 불의원인은 방금조사중이다

乘客滿載한 自動車에發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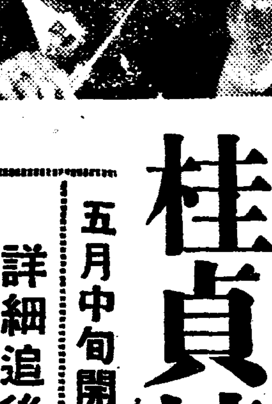
五星自動車部騷動

먼거리를 떠나려는 승합자동차가 손님을태운채로 내부가 타버려서 깜딱하면 큰참사를일으킬번 한일이 =이십칠일 오전십일시 오십분경 시내 종로통(鍾路通)삼정목 륙십삼번지 오성자동차부(五星自動車部)소유합자동차 경제사천팔십구호가 경긔도가평(加平)으로 향하야 출발하려고 손님팔인을 다태인다음차고안에서 운전수 이우봉(李又奉)(二三)이가 휘발유를 너흘때에 돌연 항크 근방에서불이 이러나서 탓든 손님은 당황조하야 나리느라고 부상을 당하는등 소동을 한다음 경상이 잇섯슬뿐 다행히 무사하얏스나 가젓든 행장전부가 소실되고 시가 륙천원짜리 자동차는 내부가 전부타버리여 오백원의손해를 내이고 소방대까지 출동한뒤에 겨우진화하얏다 원인은 비오는날임으로 피여노흔불에 휘발유가인화된것인듯하다

結核病退治策으로 各地療養所設立

將來는大規模의施設을目標로 總督府衛生課서立案

현재 이십만명이나 된다는전조선 결핵(結核)환자의 료량 퇴치책에 대하야는 총독부 위생과에서금년 안으로 구체화식히려고 여러가지 조사연구를 하는중이든바 그중에서 국립료양소의설치 계획은당분간중지하고 각도의재정이 허하는 한도에서 각도에서 지방비로료양소를 설치하도록 알선하야점진적 으로 이십만명이나되는 결핵환자를치료퇴치할계획으로각도의지방비로설치한료양소가전부설립되면 점차국립으로 승격식히는 동시에 결핵예방령을 제령(制令)으로제정하게될터이라한다 그럼으로 마약중독예방책과 아울러결핵환자를 위한국립 료양소의 설치계획을 한든것은 중지하고금후상당한긔간을 두어 점진적계획으로수행하도록할터이라한다



桂貞植氏提琴獨奏會

五月中旬開催

詳細追後發表

主催 朝鮮日報社

新코ー스마라손 養正孫君斷然一着

二着은邊天幸君

朝鮮陸上競技協會主催의 第一回마라손競走는 二十七日午後一時에 京城運動場 百米決勝點을 參加한 十五名健脚이 一齊히스타ー트하엿는데 새벽부터 나리는비도 아직개이지안허 흐릿한 날씨에 地盤이 雨濕하야 條件不良한코ー스이엿스나 各選手들은 新記錄樹立을 目標로 京永街道二十六哩四分一의 正規코ー스에서 養正의孫基禎君이 斷然 先頭를달리고잇다 孫君은 斷然리드하야 斷然一着하얏다 永登浦歸還點까지 卽往路의到着順과 그타임은다음과갓다

◇往路着順

一、孫基禎(養正)一時間十二分二十五秒

二、邊天幸(□□)一時間十二分五十五秒

三、金聖鎭(忠州)一時間十五分五五秒

四、曹秀龍(東幕)一時間十六分二十二秒

五、李基萬(養高)一時間十六分二十五秒

六、安三鐵(往十里)一時間十六分四十秒

世界올림픽氷上代表로 金正淵、李聖德正式決定

今年末에獨逸로向發

【電通東京電話】 明年二月 獨逸가르밋쉬·바르텐키르헨의 氷上競技場에서擧行하는 冬季國際올림픽大會出場 日本 全日本氷上選手權大會以來 候補者를選拔하야 合宿練習中이든바 昨二十六日에열린 올림픽選手最後決定代表委員會에서 다음과가티 選手를 決定하엿는데 스피ー드部에서는 우리의兩氷傑 金正淵、李聖德兩君이 選拔되여 今年末에는 獨逸을向하야 出征케되엿다

▲스피ー드部 (長距離)李聖德(新義州出身早大) 金正淵(平壤高普出身明大) (短距離)石原省三(早大)(中距離)河村泰男(滿洲)

▲氷上하키 FW=田司敏彦(滿洲) 平野進(同)木下昌樹(同)神山滿(日光)原信男(苫小牧)北澤正辰(同) DF=安保茂(同)早間雅博(滿洲) GK=本間偉久(滿洲) 千村信次(立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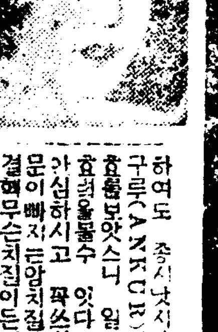
스케ー팅職業코ー취

日本피ー규어스케ー팅界의 指導者인 永井康三氏는 이번職業코ー취로轉向하야 압흐로는『아마쥬어』公職을辭하고 職業的으로 코ー취를하기로 되엿다는데 스케ー팅界에서 公然하게 職業코ー취를發表하기는 同氏가 嚆矢이다

比島의陸、野、拳鬪 日本에遠征

六月上旬一行四十名이

【東京電話】 日比對抗競技會開催에對하야는 一時開催不能說을傳하고잇스나 日本體協에서는 지난二十三日에 野球、陸上、拳鬪三競技關係者의 意向을聽取하고 大略六月上旬에 大阪東京等地에서 日比對抗戰을 開催하기로되엿는데 比島側은 陸上十五名、野球十五名 拳鬪五名等과 코ー취監督을合하야 總計四十名이日本에遠征할터이라 한다



치질엔 영구로가제일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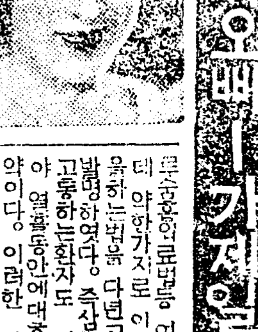
(약가)중증에 이원 경증에 일원

(약은)경성신성당에로주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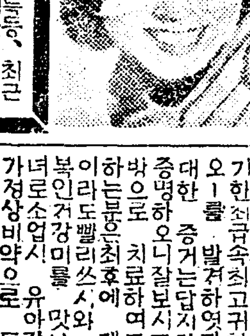
기침·담·천식엔 엣치빼ー가제일이오

(약가) 완고용삼원 중증용이원 경증용일원

경성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부족통·폐병·륵막염엔 나오빼ー가제일이오



체증과속병엔 경오ー가제일이오

완고용(頑固用) 한갑 삼원

중증용(重症用) 한갑 이원

경증용(輕症用) 한갑 일원

(약은)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만일 무슨 약이던지 이삼일쓰시와 특이성의 체질(特異性體質)로 병에 안맛거나 광고와 틀니는 점이 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현저한 특효가 업거든약을 곳보내시오 청구하시는대로 하여드리겟슴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五) (제일큰서양약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약국부)

電話光化門二三四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家庭

신록을 본바더 힘차게 명랑하게
한평생 깁부게살고 못사는것은 마음갓기에 달렷다

벌서 사월도 며칠 남지아니하 영겁의 세게로 다려나게 되엇습니다.

×

요란한 봄빛도 벌서 거더저 『사쿠라』, 진달래, 개나리등 백화경연(百花競艶)의 봄꼿동산도 이제는 락화비분의 옛성터로 변하고 바야흐로

물으녹는신록의향

긔가 프른장막을 둘러치게 되엿습니다. 산을 보아도 프르고 들을 보아도 프르릅니다.

×

봄이온지 엇그제 가튼데 봄소식에 벌서가고 신록의 오렵 여름철이 오게되니 이신록의 일생도 잠간입니다 소동파(蘇東坡)가 읍죽이 서장강지무궁(羨長江之無窮)해오생지수유(哀吾生之須臾)의시ㅅ구를써 장상의 무궁히를 부러워 하고 인생

일생이잠간인것

을 슬퍼하엿거니와 세월이 이가티빠른데 인생도 잠간이 안이겟습니까?

×

오늘의 조선사람의 생활을볼때 세월가는것을 앗기고 세월흐름을 슬퍼하면서 좀더행복스럽고 조더 생긔잇게 일하고 로력하려는그씩씩하고 굿건한 리상으로써실천을 하는 가정이퍽은 드믄것갓습니다 거빠진듯 타기가 만만하야생생한 긔분이 적은것은 퍽도유감입니다

×

부질업는 내외싸홈 부질업는남편의 방탕 부질업는안해의방종그리고이것이

여러가지갈등!

이리하야조선의가정은모—다불행한것갓습니다.

×

이것은 결국 남편이나 안해가 가지는 「부부도」를 망각하는것으로 크게 경계하여야할것입니다.

×

더구나 때는 환절기라 신경이과민된 도처의 남녀는 이때가 더한층 계절적으로 보아긔경이 예민한때이니

마치가서적으로

흔은 대리교제에 잇서서 자홈이 자즙니다.

×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별한주의를 하서서 되도록 명랑한긔분을 가지시십시오

×

프른산, 프른들! 고요한 흐르는 시내물! 이자연을 따라 여러분의 심긔를 일전하시시요 자연에 취하고 자연에 심신을 위로하야 소심을 버리고 좀더 씩씩하고 명랑하게 마음을 갓고

자연의동산으로

걸으십시오 흔흔 어린이를 데리고 흔은 전가족이 일치하야 이러케자연과 친하는사히여러분의안게는 넓버지고 여러분의심금은 시원해 질것입니다

신경질적인 쳐여름! 여러분 가정에는 좀더 신록의 냄새가 더 씩씩하고 명랑하십시오

깨쏘다지는 海外뉴—스

술한잔권햇다가 살인죄로불려가

미국 『칸사스시』에서는 여섯살먹은아히가 소주를먹고 취해서 죽은일이잇다. 그러케말하면 아조 그아히는 번래부터술을잘먹는것갓지만 실상그런것도아니요 宴會에를 딸아갓다가 술한잔을어더먹어든것이라고한다. (술을준사람은 마취해가지고 해롱거리는것을보려고한모냥인데 해롱거리가는중에 의식이몽롱해가지고닷새만에 죽어버리고말엇다. 그사람은 술한잔잘못주어먹다가 지금 살처인의 쉬조를밧는답니다. 아예어린아히들에게 함부로술을주지마시오.

라디오

二十七日 (土曜)

◇午後六時 童話金銀樹 高在天
◇同六時二〇分 兒童週間新聞
◇同六時三〇分 라듸오學校 野外寫生(二) 尹喜淳
◇同七時三〇分 講話 獨逸나치스政治의新狀(二) 李晶燮
◇同八時 ‖京城으로부터全國中繼‖ 正樂과雅樂 一、正樂 靈山會像中 (가)念佛 (나)打鈴 京城正樂團 玄琴…金相淳 奚琴…李錫淳 大笒…金永根 細笛…高敬德 杖鼓…金一宇 二、雅樂 維皐曲 李王職雅樂部員 指揮…雅樂師長 成和鎭
◇同八時二〇分 流行歌 一、울지마려요 二、十八歲의밤 三、追憶의章笛 四、華麗한저녁 五、가여운女子 趙錦子 伴奏 DK오—케스트라
◇同八時四〇分 唱劇調 一、短歌 天下太平 二、唱劇調 바타령 朴綠珠 鼓手丁元燮
◇同九時一〇分 京畿歌謠 一、時調와男唱지름 二、博物歌 三、景福宮打鈴 趙牧丹 金蓮玉

二十八日 (日曜)

◇午後六時〇分 唱歌劇 꼿피어라 全三景 (配役) 진달내…陸北順 개나리…韓寶瑱 할미꼿…尹景永 나비…金龍燮 꾀꼬리…成俊德 할아버지…白鈴 귀뚤이…元裕龍 朝鮮兒童藝術研究協會員 效果・金泰哲 伴奏・元致升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사랑이라는것은 崔錫柱
◇同七時三〇分 (東) 室內樂 一、奏唱曲 E長調…신딩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로맨스・안단테 第三樂章 終曲 알레그로・비바체 二、斷章세—그란作曲 봐이올린 알레산다・모길레우스키 피아노 레오실타로
◇同八時〇分 漫談 智略 尹白南
◇同八時三〇分 俗曲 一、寧邊歌 二、朴淵瀑布 三、도라지打鈴 四、노래가락 林明月 伽倻琴 李日善 奚琴 金奉業
◇同八時五〇分 名曲鑑賞 (레코—드) 一、獨唱 言樂(朝鮮音樂)……河圭一 二、獨唱 希臘音樂……요하힘・모—자 三、猶太音樂……프렝겔 四、合唱 그레고리唱歌……할비히指揮 五、合唱 初期多聲音樂……할비히 六、獨唱 드루바두르……요하힘・모—자 七、민네장……요하힘・모—자 八、合唱 初期니—더란드樂曲……피우스・칼트指揮 九、合唱 十六世紀獨逸合唱曲……피우스・칼트 十、十六世紀多聲樂……후고・류델指揮 十一、마드리칼・하들러作曲……카—큰・티—큰指揮 解說 朝鮮音樂協會 李□泰

二十九日 (月)

◇午後零時五〇分 吹打 一、吹打 二、念佛 三、靑春歌 四、아리랑 五、방아타령 六、樂山道 三唱吹樂團 指揮 趙昌植
◇同一時二五分 京畿歌謠 一、平時調 二、小春香歌 三、遊山歌 四、노래가락 金蘭坡 短簫 崔壽成
◇同六時 하—모니카獨奏 一、엇던개인날…푸치니作曲 二、킹칼・마・취・온라—믄作曲 三、알젠틔나의밤…보트치作曲 四、항가리안・단스 第五番…브람스作曲 五、스케이터・월쓰 발트토이펠作曲 六、바닷드의合唱…보알퓨作典 金坡園
◇同六時二五分 紀念講演 中樞院參議 申錫麟
◇同七時三〇分 歌詞 一、乾坤歌 二、春眠曲 安鶴仙 金花香 大笒 金永根
◇同八時一〇分 (東) 피아노와管絃樂 피아노協奏曲 第五番 E、플랫트『皇帝』…베—토—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아다지오・운・포코・못쏘 第三樂章 론도・알레그로 피아노 레오니—드・크로이자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近衛秀麿
◇同八時五〇分 連續古談 大丈夫(二) 庚秋閣

曆 四月廿八日(日) 舊三月庚辰(大)(廿六日) 甲戌・火・星破
●祭祀에宜함
▲淸明 六日(舊三月初四日)
▲穀雨 二十一日(舊三月十九日)

來 五月八日 午前十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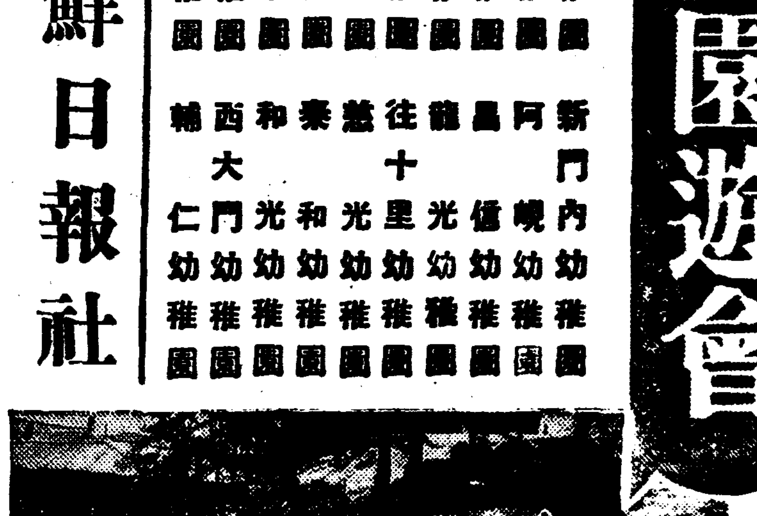
第七回 全京城幼稚園聯合園遊會

景福宮뒤景武臺에서

參加幼稚園 (無順)

麻浦幼稚園 樂仁幼稚園 安國幼稚園 三光幼稚園 水標幼稚園 甲子幼稚園 紫霞幼稚園 南大門幼稚園 東幕幼稚園 新明幼稚園
桃花幼稚園 宮井幼稚園 明德幼稚園 朝陽幼稚園 樂二幼稚園 養明幼稚園 城北幼稚園 中央幼稚園 槿花幼稚園 孔德里幼稚園
新門內幼稚園 阿峴幼稚園 晶信幼稚園 龍光幼稚園 往十里幼稚園 慈光幼稚園 泰和幼稚園 和光幼稚園 西大門幼稚園 輔仁幼稚園

主催 朝鮮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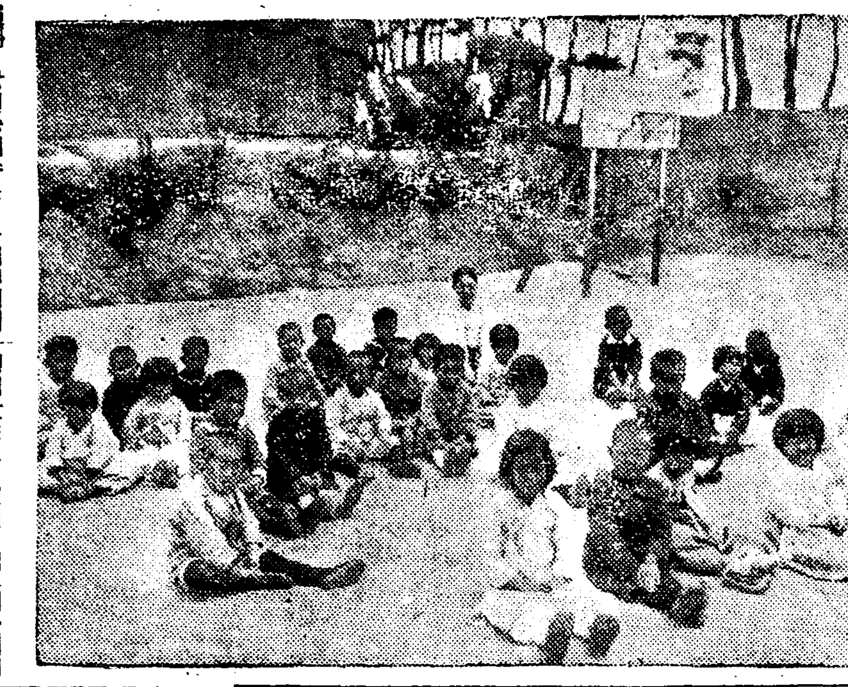
雨天順延

서울各幼稚園巡禮

全京城幼稚園聯合園遊會를압두고

◇慈光幼稚園

여긔는 자광유치원(慈光幼稚園)입니다 본래 락아소이엿든만큼 아직 그전통이 조흔방면으로는 남어잇다고합니다 선생님의말슴에 의하면 운동장이좁아서 다소간 불편한바가 업지안타고하나 그래도 사진과가티이러케 천진스럽고 이러케 유쾌하게춤니다. 남학생은 손에손을잡고 녀학생은 이마우에 에워싼 두팔이 맛치 어제ㅅ밤에일허버린천사의꿈을 다시 그리는것갓습니다 사진을밧히고 다시교실로 드러가는데도 선생님의손뼉에 발을마추어서 오래동안훈련을바든게나 다름이업시규률을직힐줄압니다. 이유치원은 원아가 칠십오명인데 당일출석수는 륙십칠명이라고하며 선생님은 김혜숙(金惠淑) 함순정(咸順貞)두분이라고합니다.



◇崇仁幼稚園

룡두리 송림욱어진속에 붉은벽돌집이소사잇는것이 이 숭인유치원(崇仁幼稚園)입니다. 여긔만해도 시외려서그러한지시내의유치원이 그설비나 아동들의노름노리나 의복까지도 도시적인데비해서 여긔는 주위의풍경부터도 전원적이지마는 아동들의 노는모양도 자연그대로입니다 선생님부터도 땅우에그대로안저서 노시지마는 어린애기들도 맨흙우에안저노라도 옷을앗길줄모르리만치 자연을사랑하는것갓습니다. 이유치원은 외따른만큼 아동수는적어도 또한그만큼 한집안식구갓치 정답고 유쾌하게잘논답니다. 이유치원의 원아는삼십륙명인데 당일의출석수는 이십구명이며 선생님은 최덕창(崔德昌)씨이라고합니다.

◇南大門幼稚園

멀니 남대문을바라보면서 세브란스의전의 새로터저나오는신록(新綠)의 그늘속에 못처잇는남대문유치원(南大門幼稚園)입니다. 『카메라』압헤 낫타난『모—던』긔사(騎士)들이 잔듸밧헤서뒤ㅅ마당에서 사방으로모혀든것이 이러케마습니다. 가로 새로 회달니는 긔세가 완연이 무궤도(無軌道)의 천지와도갓것마는하나도 교통사고를 이르키지안는것은 자못 탄복할만합니다 맛친 시간이되엿다고해서 붉불이『짜가』하고 도라서는데 다시 강당으로 휘몰녀드러가는 발자욱소리를 드르면서 우리는 교문을 나왓습니다. 이유치원은 원아가 칠십명인데 당일의출석수는 오십명이라고합니다. 선생님은 김선순(金善順) 진점득(秦點得)두분이시라고합니다.

사진 상은자광, 중은숭인 하는남대문

발까락이변하야 손까락되기까지
—整型外科手術綺譚—

『레—닌그라—드』외과의협회(外科醫協會)의 대회석상에서 『우레덴』외과의학연구소의 『엠, 아이, 크스리크』교수는 올흔쪽손 둘재손꾸락이업서진환자의게 대해서 둘재발꾸락을끈허서 이식(移植)하여든바 성공하엿다는것을 발표해서 대회의흥미를 매우끄으럿다고한다.

그래서 이수술을바든 환자는 인제는 올흔쪽손에이식(移植)한 발꾸락을가지고 보통손꾸락이나 조곰도다름업시 자유자재하게 쓸수가 잇게되엿다고한다.

이와가흔 수술로서는 일천구백삼십이년에『우레덴』교수가 한번시험하여서 성공하고 그뒤에『우레덴』교수의 문하에서 수재이라고하는『크스리크』교수가 두번이나 시험하여서 다성공을하엿으나 이번과갓치 자유자재하게 꼬부렷다 폇다하는게라든지 마음대로쓸수잇스리만치 훌륭한성공을한것은 처음이라고한다.

키도늘엇다줄엇다 아츰저녁이다르다
자고쉬는동안에늘어난다

아츰 저녁으로 사람의 키가 줄고 늘고한다는 자미스러운 이야기가 잇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놀내일것이 업는데 심한사람은 한치 차이나 된다합니다

×

어찌하야 그러면 하로에도 이가티 키가 늘고 줄고하는나 하면 사람의 척수(脊椎)는수골비개가 잇는데 이척추와 척추사히에는또 연골(軟骨)이 잇습니다 그런대이연골은 무거운것이 눌르면 눌리여저서 전체로보면 한치나 단축되는세음입니다

×

아츰에 일어나서 밤에 잘때까지 우리들의 대부분은 일어서서 활동하는 습관이므로그새에 몸의 중량이 더해지어 척추간의 연골이 단축됩니다 그러하야 아츰일어낫슬때의 키로보다면 밤에 잘때는 키가적어집니다

더구나 일의 성질에 의해서 로동하는 사람과 안저서로동하는 사람과는 척추에 닷는중량도 달러지므로 단축되는기리에도 차가 생기는것으로 생각되나 아즉 그것은 확실한것을 따루어 보지못햇스므로 정확한것은 몰옵니다

×

밤이되면 낫의 연골이 그단축되는도가적어지는것도 연골의탄력이 업서지는때문에 신축되지안는때문입니다 따러서 등도광으러지고도 키도 장년긔보다는 적어집니다 장년긔까지는 일단단축되엿던연골도 하로밤지면 다시회복되는힘이 잇기때문에아츰 저녁으로 그차가 심해지는것입니다

×

잘자고잇는 병든사람의 키가커진다는것도 척추에 닷든무게가업는때문입니다 신체검사를하여 키로써 취직이결정될때 아츰과저녁으로 키가달러지므로 이것을유의하실필요가잇습니다

少年小說 異域에픠는꼿 (八)
崔秉和

적장은威脅片紙

혜성팀의 무거운책임을 집머진 홍수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야 혜성팀은 이제는 원기가아조 꺽기여서 내일 대회에 출장은한다하야도 승리할자신은아조업시되엿다. 허선생님과 리선생님두분 역시 선수를 위로하시면서도 신색은 아조답답너지시고 음성까지도 변하여지신듯하시엿다.

홍수가 이번대회에 출장할제는 둘재문제가되고 이제는 홍수의생사(生死)문제가 첫재문제가 되엿다. 『혹시 자살을하엿슬가』하고 생각하여보앗스나 홍수가 자살할원인은 털끗만치도 업섯다. 그러면 누구에게 유인을당하여갓나? 나히가 열여섯살이니 그만하면 유인될나히는 지낫다. 자살도아니고 유인도 아니라면 무엇일가? 여기에는 그무삼 비밀(秘密)과 음모(陰謀)가 반듯이숨어잇슬것이라고 두분선생님은결정을하시고 그대책을 상의하시엿다 그러나 이곳만하야도 객지이고 더군다나조선동포는그수효이고 만주국사람과 떡—쳐은수효가 헤일수잇슬만치 러시아사람의 수효가 전부이여서그들의 세상이고보니 차저볼길이 아득하엿다.

××신문사에서 발행한 호외(號外)를보고 놀난가슴을 진정치못하고 뛰여온 조선동포가한동안 줄다어서 차저왓스나 그저 근심만더할뿐이지 별로 신기스러운 묘책을말하야주는 사람은 업섯다. 그러타고 어듸까지든지 서로 얼굴만치여다보면서 근심만하고 태연히 안저잇슬수도업섯다.

허선생님께서는 무어을 결심하시엿든지 비장한음성으로 선수를 바라보시면서 이러케 말삼하시엿다.

『우리들은 지금 편안히 안저잇슬때가아니다. 우리들은 서로얼굴만 치여다보고 근심하고잇슬때가 아니다.

우리들의 귀한동무 우리들의 정다운 동포한사람은 지금 고국을떠나 이곳에와서 생사를알수가업시 되엿다. 아! 얼마나 슬프고 가엽슨일이냐?

우리는 래일 대회의 우승을 못하는 그슬픔 그원통한것보다도 한사람의 동무를 일허바린 그슬픔과 원통한것이 몃십배며 한지 몰르겟다. 우리들은 이러나서 손을나누워서 어듸까지든지 차저보기로하자.

또 홍수한사람이 출장못한다고 우리는 이번대회에 기권하여서는 안된다. 우승을하고 아니하고간에 그것은 별문제다.

우리는 이긔회에 더한층 우리변의조선소 발자한긔상과 고상한 운동정신을 저사람들에게 알녀줄 필요가 잇는것이다.

자! 그러면 내일 대회에 출장할 그시간까지 할수잇는 전시가를 도라다니며 차저보기로 하자』 허선생님의 이러케 말삼하시는 음성에는 열(熱)이 잇고 힘이잇고 또 그반면에는 압품이잇고 노여움이 흡넛다. 오즉 머리를 숙으리고 죽은듯이 고요한가운데서 듯고잇든 여섯선수의 눈에서는 뜨거운눈물이 주루룩—흘러내렷고 두주먹은 붉근 쥐여젓다.

이때 우편배달부의『편지요!』하는소리에 일동의시선은 그리로 솔리엿다. 허선생님께서 바드시고 급히보시니겻봉에는 惠聖普通學校先生이라고 씨여잇고 뒤를보니간그곳에는 아모글자도 씨여잇지안헛다. 여기에 의심이 벗쩍나신 허선생님께서는 급히 봉투를뜻고 사연을 보시엿다. 흰 반듯반듯한조히에 먹으로 한문자를 썻는데 그사연을 조선말로 번역하면 이러하엿다.

당신학교의 선수 한사람을 삼일간만 마터두겟습니다. 그선수는 잘대접하고 편안히 쉬이게 할터이니 아모 염려마시요. 사흘후에는 당신들에게로 돌려보내드리겟습니다.

그까닭은 말삼드리지안허도 총명하신 당신들께서 짐작하실줄 압니다. 그것을 뭇지안키로 하겟습니다. 경찰서에 알리실필요는 업습니다. 알리시면 리로운것보다는 해로운것이 잇슬것이니 잘생각하야 하십시요

편지사연은 여기서 쯧낫다. 그리고 그편지의 사연이 극히 점잔으면서도 은연히 위협을한 의미를 나타내것으로 보아서 인것은 단순히 재물을 탐내고인질(人質)로 붓드러 가는 마적(馬賊)이나 비적(匪賊)의 행동이 아닌것마는 확실하야 조곰안심이 되엿다. 그러라고 그냥주저안저서 사흘을 기다리고만잇슬수가업섯다.

이것은 만주국사람이 혜성팀이 우승할것을 미리짐작하고 그중에서 가장책임이무거운 주장(主將)인홍수를 밤중에 드러와서데려다가 어느비밀한곳에 숨겨둔것이라 생각하고혜성팀선수일동은그비겁한행동을웃지안흘수업섯다(계속)

호ー산美肌크림

風鳥メール

후조 메루

麗人에 벗나는 月態와 美肌야말로 神妙한 メール의光彩

新發賣

醫藥의荒野에 高貴한 神秘! 蘇의精

藥用化粧水 風鳥チーゼル

・얼골을정케하고
・개기름을업새고
・面刀한뒤에
・化粧하기전에
・빗을하엿케

東京 タンゴドーラン本舗宇野達之助商會 大阪

頭의榮養

頭腦를二倍로쓰오

人生을二倍로쓰오

神經衰弱(신경쇠약)

ヒステリー(히스테리)

記憶力減退

頭痛(두통)

胃腸을强하게하는 頭痛疲勞回復藥 劑

はれやか

獨逸原名ハイテル

宿醉 眩氣
疲勞回復 齒痛

頭腦를健全케하야—

相當히머리를쓰드래도 疲勞치안흐면조켓다

頭腦의 機能이 健全하야서 어느때나 元氣旺盛하게 活動하고십다고 하는것은 사람이면 누구나다 希望하는바이나 그러나 그實現方法으로서는 머리에 榮養을 補給할것과 充分한 休養을줄것을 考慮하고게시는분이 여러분中에 몃사람이나 게십닛가。

今日大部分의 사람들은 日夜로 奴隷와가티 酷使할뿐으로 조금도 머리를 休養식힐生覺은업고 腦神經이 甚한酷使에 견대지못하고 或은 다른 病과 毒素에 疲勞된結果 頭痛 齒痛 神經痛 其他痛症으로 나타난즉 놀내여먹는藥이 무엇인가하면 大部分은 解熱劑아스피린 안치헤푸린等의 主配品—即世間에 서말하는鎭靜劑인것이다。

여러분은 感氣에걸여서 解熱劑를 너무먹어서 배속을 납부게하는 經驗이 잇지안슴닛가。 그것은 피린劑에 胃臟障害의 副作用이잇슴으로 一次二次의 服用으로는 알만한 害가 나타나지안흐나 머리가압흐고 이가압흐며 朦朧하야 잘이게바리는 境遇에便利한대로 자조連服한 마즉그때다 痛症은 얼마끔 緩和되는 反面에胃腸內壁이 副作用으로 因하야 甚하헐집이나

畢竟에는 胃癌 潰瘍과가튼病의素因을 일으킬危險이 不少하다 只今까지 頭痛이라 말한것中에 이러한種類의 頓服劑를 連服하면 消化器를 損傷하야 胃腸을 납부게하면 그炎症面에 生起는 毒素로頭腦까지 悲慘한影響을입는다—어는 方面으로生覺하더라도 缺點투성인것이만코 머리에榮養을 供給하야서 頭腦細胞組織을 튼튼케하는本格的인藥은 아즉市場에서 販賣되엿든일은업는듯하다。

그러나 日獨藥化學研究所에서 多年研鑽한 結果發明한『はれやか』는 腦神經細胞를 裨益하는 頭腦榮養素로써 有名한獨逸明腦劑에 胃腸을强化整調하는成分을 增配調製한처음된 新和劑로서連服하면 非常한危險을일으키는 只今까지의 鎭靜劑와 全然趣旨를달리하야 頭痛、齒痛、류마치스等의 痛症을 抑制함에도 單一頓服劑보담 훨신 優良하야 一方連服하면 할수록 腦神經細胞를培養裨益케하야 疲勞를除去하고 腦力을向上식혀서 頭腦作用과가튼것은 自己自身으로도의意識할수잇슬만큼 明瞭하게된綜合的効果를 兼한點이 이藥의

자랑할만한特色이다。그럼으로『はれやか』의効果가如何히 優秀한가에 對하야는上述한바와如히머리 를唯一한 資本으로삼는 文壇諸名家의 愛用과推奬으로써알으섯슬줄로밋고 說明을 省略하나每日

忽忙한 事務에忙殺되는 執務家와 工夫에 熱中한學生은 勿論常習頭痛者와 神經衰弱患者等의 頭腦榮養藥으로써 또危險치안흔 腦神經疾患의 治療用으로써 本劑야말로 最近醫化學의 가장進步的인 發明藥이라고 推奬할줄밋는다。

無代進呈

頭腦의榮養劑로써腦細胞의裨益에優秀한効驗을가진『はれやか』가頭痛、齒痛、眩氣、其他腦神經疾患의治療、疲勞回復에엇더한効果가잇는가하고 實際로試驗하여보심을 願하야 希望者에試用藥과頭腦榮養에關한詳細한文獻을 無代進呈한다 執務家、學生、一般智識階級、特히常習頭痛者인분은 第一몬저實物로本劑의眞價를體驗하여주십시요 希望者는葉書로朝鮮日報名、住所氏名明記하고 東京銀座一の二十日獨醫化學研究所로申込하시오。

はれやか에代用藥이업다。

「はれやか」는腦髓細胞의重要成分이요、또頭腦活動의原動力인有機燐化合物을 主體로하고이것에 著名한頭腦藥及健胃整腸劑를特許方法으로 巧妙히集成結合한藥物界嚆矢의新發明藥이다 只今까지의鎭靜劑는連服한즉胃腸에危險하고効果도 단지一時的에不過하나 本劑는腦에榮養을주워서 머리를조케하고 胃腸까지튼튼케하는綜合的効力을第一特色으로하엿다 따라서「はれや」か에 代用藥은엇다아무조록安心하고愛用하심을願하는바이다。

主治効能

頭痛、偏頭痛、齒痛、流行性感冒、關節류마치스、神經衰弱、히스테리ー 疲勞回復 胃酸過多症 消化不良 胃아도니ー

特히不眠症、腦充血、宿醉、船車暈、眩暈、히스테리ー、神經過敏症 婦人病、腦脊髓、神經系에基因된頭痛、胃腸障害에基因된頭痛、特히過度한執務運動過度로된頭痛에卓効잇다。

藥價低廉

三十錢 五十錢 一圓·二圓 三圓·五圓

各地藥店及떼파ー드에잇슴

販賣元
東京市銀座一ノ二十
日獨醫化學研究所
振替東京三〇〇四三番
電話京橋六八四一番

代理店 京城 新井藥房、木村藥房
外各處有名藥店에有함

小盃散稿 【一】

李殷相

序

歷史의 興亡이 幾番이던가. 또 한 長駿人事를 어찌헐는가. 모든 成住壞空의 無常함 뒤에 돌지안은것 무엇이던고. 그사이에 宇宙의 運命을 가진체로 나도 잠깐 여기 머물음을 어떠나니, 머문동안이라 生이 잇고 來往이 잇고 또 머문동안이라 悲歡이 잇고 思想가 잇다. 사람마다 그 天賦와 性命이 갓지안코 그 嗜好와 方向이 달라 業存不明한채 사람의 오가음이 어떠냐 생각하면 부질업슴가트다 自己의 生命이 머물은 그동안에 알고모를 때에 그도 한갓 하는 일이니 을타 그대로 그게 다 머문 瞬間이요 또 머문 表徵이 아닐까보냐.

古人이 왜 여기와서 머물렷다 갓스며 내가 또 왜 여기와 머무는지, 古人이 왜 여기 이가 가 잇는것이다.

毁譽史를 남겻스며 내가 또 뭣 여기서 이가튼 運命을 밟는것인지, 이는 眞古의 근심과 함께 풀어야 할것이니와, 다만 내가 여기 지금 머물고 잇는것은 分明한 事實이다.

古人이 나를 볼수업고 나도 古人을 볼수업스매 古時의 萬物, 古人의 件件事事가 다 내게 무슨 相關이 잇스리마는, 古人이 이미 여기 머물러 글을 남기고, 글을 남긴지라 後人이 맑然히 그글을 읽고, 글을 읽은지라 맑然히 古人을 사귀엇은지라 古人을 사귀지라 서로 말업는 사이에도 눈물과 사랑과 아울과 기쁨을 다가주는 갓스수 잇는것이다.

그러하야 내 이러한 心境에서 읽어 안자 或은 燈下에서 古人의 詩를 읽고, 或은 窓外를 바라 古人의 行蹟을 생각하면서, 모름지이 마음에 새겨두어버리고싶지 안은것이면 筆頭를 들어 手帖의 어느 頁에 하나하나 조각조각 적어두고서 時時로 뒤적거림으로써 내 즐거움을 삼는것이다.

家庭거리에 항아리를 노코 그속에 紙片을 넣어두었다 쌓이면 그 항아리를 뒤지면것은 古時學者의 雅致엿스나 나는 寒士의 공부라 항아리 하나 업스매 讀書를 작을 빗조차 업시 手帖을 가지고서 나의 雙돈을 알을 할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내 手帖속에 「나의 항아리」를 불러 나, 이제 다시보매 항아리中에도 내 항아리는 때묻고 貧寒한채 도 조고마한 항아리에 傳하되 小盃이라 하고, 거기 적어 더 되 散稿라 한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小盃散稿는 조각조각이 또한 散稿에 序조차 업는것이라 어에 讀者는 처음도업고 나중도 업스며 序와 連絡이 잇슬것도 업스며 常 讀書하는中에서 一件의 事實이나 一句의 詩文으로, 大小間에 感激바든것을 대목대목이 적어내려 나가기도 여기잡힌 머물은 어, 나와가치 여기잠깐 머물은 모든이에게 傳하야 함께알고 함께 느끼자는것뿐이다.

自叙傳的作家 토ー마스·만研究 【3】

曹希醇

그(니체)와의 接觸은 내自身을 養成하는 精神形式에 對해서 高遠한 意味로 決定的인것이엇다. ……。 一言을 한다면 나는 니ー체를 모럿보담도 于先 自己克服者로 보앗다。……。

니ー체의 體驗을 精神的、藝術的인것이라 할수잇다면 쇼ー펜하우어ー의 그것은 決코 엇지못할 倫的體驗이엇다。……(後略)」

以上의 그의 告白과가티 토ー마스·만의 世紀末的 體驗에 形而上學的根據를 준것은 쇼ー펜하우어ー의 哲學이엇스나 그러나 모든 『生命은 苦惱』라한 쇼ー펜하우어ー의 主要命題를 토ー마스·만은 모든 生命에 適應식힌것이 아니고 다만 自己自身에게만 適應식힌것이다。 토ー마스·만에 잇서서는 『生』을 否定하는것보담 『生에 對한 自己의 無能力을 肯定』하는것이 基調가 된것이다。 그런故로 『生』 그自體를 否定하는 쇼ー펜하우어ー와달리 그는 다만 自己한사람만의 『生』에 不適當하다는것이며 生活欲에 넘치는 生氣찬사람들에게는 오히려 憧憬과 羨望의눈을 던진것이다。 그에게잇서서는 『死』는 『生』으로부터의 救濟인 同時에 『生』의 根源까지 歸着한 『生』과의 完全한 融合을 意味하는것이다。 그리고 큰 矛盾가티 들릴지모르나 이가튼 後感이야말로 데카단트에 對한 唯一의 救濟일것이다。 卽 여기서는 『死』는 벌서 『生』의否定이아니고 『生』自體에 이르는 必然的過程일것이다。 이것은 生活에 對한 無能力者가 『生』을否定하지 안코 다만 自己를 『生』의祭壇에 犧牲하는 絶對的 『生』에의 歸依 『生』에의愛를 表現하는것이다。 데카단트요 厭世主義者요 悲觀的人生觀의 體得者인 토ー마스·만이 니ー체의 體驗에 依하야 『死』를 通해서 第二의새로운 『生』의 肯定에 이르는 다시말하면 自己克服者가되엿든 實로 이 瞬間에 잇는것이다。 『萬若내가 精神的으로 그(니ー체)에게서 무엇인가를 어덧슴에 對하야 一言할必要가잇다면 事實나는 다음과가튼말밧게 發見치못한다。 그것은 『生』의 觀念이다』라고한 그의 니ー체에 對한 感謝의말로써 이것을 能히알수잇는것이다。

『붓덴부로ー크家』는 着手한지 二年半後 卽 一九〇〇年末 上下二卷으로써 伯林에서 出版되엇다。 『어떤家族의 沒落』이라고 傍註한 一千餘頁의 長篇은 토ー마스·만自身의 家族의 歷史인것이다。 最初의 商人으로서 實務에 依하야 富와 名譽를 어더서 어떤有名한自由市에서 繁榮한 붓덴부로ー크家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孫子에게로、時代가 變遷함을따라서、漸漸 衰耗父時代의 生業에 넘치는 剛健質實한 意志와 實行力을 일허버리고 實生活의 激浪中에 處했스면서도 生을 肯定할수업시 無爲無力、過去를 追憶하며 深刻하게 煩惱하는 頹廢的 神經質的 藝術家質의人物이 만히 나게 되므로 家運이 漸漸 衰廢해간다는 梗槪이다。 一七六八年 商會의 創立으로부터 一八〇〇年의 結末、 卽 붓덴부로ー크家의 孫子 한스의 死까지의 四代一世紀內의 相當히 長久한 이 家族沒落의 年代記는 事實에 잇서서 토ー마스·만 自身의 祖先의 歷史를 傳하는것이다。 그러고 그의 祖先뿐만아니라 明白하게 만은 自己自身을 이 舊家의 末期에 나타난 一의 退廢的、頹廢的 現象으로서 自認하고잇다。 이 作品中에는 만과 關係잇는 모든 實在的人物이 그의 俊秀한 自然主義的手法으로써 如實하게、參觀等 아주 詳細하게 描寫되어 잇다。 그러고 作品中에 取扱되는 事件이란 約婚、結婚、死亡이나 또는 가장 平凡한 一般社會的事件이지마는 이가치 同一한 事件을 屢次反覆取扱해서도 모도가다 假性的으로 各各다른 視角과 妙味를 가저서 讀者로하여곰 非常한 牽引力과 魅力을 갓게하고잇다 그러나 이와가튼 家庭的事件과 日常生活의 敍述을 通해서 그 印象的 描寫의 奧에 悠久한 人生의 姿態가 또 永遠히 象徵的인것이 暗示되여 잇는것을 우리는 看過할수업다。 人生을 힘차게 굿세게 사라갈 斷念하고 死를 憧憬하며 煩惱에 一身을 맷기는 붓덴부로ー크家의 사람들 自己男便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計劃하든 全然 無關心하고 오직 音樂에만 熱中하는 토ー마스의 妻 겔다 沒落의 最後를 規定하는 아들 한스의 存在 이들의 描寫에 잇서서 쇼ー펜하우어ー의 厭世哲學과 바그너ー의 音樂的 厭世觀이 얼마나 作家만에게 큰 影響을 끼첫는가를 다시 우리는 明白하게 認識할수잇다。

『고요한 죽음은 깁다는것을 때로 回想하며 諧謔과 生氣를 忘却하고 恒常 疲勞와 倦怠를 느끼는 懷疑的人物인 主人公 토ー마스의 告白에서 그의 生에 對한 懷疑者的 厭世主義的 態度를 볼수잇다。 그러타고해서 토ー마스는 人間에 對해서 生命에 對해서 否定의 態度가 아니고 오히려 生에 對해서 熱烈한 眞摯의 情을 가지고잇다』 事實 토ー마스는 人生그自體를 憎惡하지 안는다。

映畵藝術의 構成法

—그內容과 形式問題에 對하야—

☆1☆ 朴基采

映畵가 가장大衆性을 가진藝術로서 完成이 되기까지 다른部分의 藝術에 잇서서도 그러하거니와 特히 映畵藝術의 그 構成에 對한 內容과 形式問題에 잇서서는 映畵藝術의 研究過程에 잇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複雜한 課題일것이며 또한 어려운일일것이다。

☆

이 問題가 映畵藝術學的 領域에서 가장 本質的 또는 根本的인 任務를 가지고 잇스므로 그러하기는 그러하거니와 映畵藝術 研究에 關心을 가진 분들은 반다시한번은 이 問題를 愼重히 研究하야 보게 될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에 對한 認識이 貧弱해서 그러한지 그러치안으면 問題가 너머 複雜하여서 그러한지 所謂 研究를 하면 研究할수록 迷宮으로 드러가는 問題는 이 問題엿섯다。

☆

이에 잇서서는 우리가 映畵藝術學에 關한 諸著書만 보드라도 藝術學의 各個의 問題가운대 이 內容과 形式에 對하야서는 여러가지로 論及되야잇는것을 볼수가 잇스나 그러나 그 論及되야잇는 만은 問題가운대에도 이 問題에 잇서서는 不明瞭하게 未解決그대로 남어잇는것을 알수가 잇다。

다만 이問題의 解決에 잇서서는 엇더한 不明瞭한 點이 잇드라도 映畵理論藝術學에 關한 專門的 研究와 實際的인 再考察을 하는데 잇서서 우리의 取할 態度가 明瞭하게 될것이다。

☆

藝術의 內容과 形式에 關한 問題는 決코 內容에 關한 問題는 이것이고 形式에 關한 問題는 이것이라고 兩項目下에서 分析的으로 말할수는 업는것이다。 이에 잇서서는 아무리하여도 그 內容과 形式의 機械的 分離은 絶對로 容許되지 안는것이며 그러타고 이를 强要하게 된다면 이가 모든 失敗의 原因으로 되는것을 藝術에서 만흔 實例를 볼수가잇다。

☆

藝術의 素材와 形式의 『모ー든것을 素材와 形式의 兩見地에서 이를 考察할수가 잇스나 그러나 이러한 區別은 藝術科學的 抽象에 不過하는것이며 具體的 藝術作品에 잇서서는 素材와 形式은 藝術的 實在의 統一體가 되므로 藝術的 實在의 分割할수업는 統一體가운대에는 이러한 二重性은 存在할수업는것이다。

☆

여기에 素材와 形式에 關한 研究의 根本的 困難이 잇는것을 말할수가 잇스나 엇잿든 이 두가지는 渾然히 融合되야 가지고 잇는것이다。

例컨대 形式을 論할때에는 素材를 無視할수가 업는것과 가티 藝術科學의 抽象이 업시는 實行되기 어려운것이다。 그러고 藝術科學的 抽象에 依하야 形式과 內容을 區別하게되드라도 그는 形式的 또는 公式的으로 分離할수업는것이어 또한 藝術科學의 特殊的 內容이다。

—(中略)—

換言하면 內容이거나 形式이라는것은 우리에게 말하여준 恒久的·絶對的의 藝術學的 永遠性을 運命되는것이 아니라 具體的으로 그 相互作用과 對立性가운데에서 理解하여야 한다는것이엇다。

☆

事實 이問題에 對한 具體的 考察에 잇서서는 歷史的 發展을 가젓슬뿐아니라 藝術的 發展에 잇서서 모ー든 事象의 說明에 對하야서는 正히 藝術的것을 變態하엿다。 이 點에 잇서서는 그러한 藝術學의 發展을 全般的으로 分析할 必要는 하거니와 內容과 形式에 關하야 各自의 任務를 우리의 藝術學에서 보는바다。

그原因을 좀더 仔細히 말하면 무엇보다도 內容과 形式이 全然 獨立的으로 分析을하고 잇는 點에 잇다。 勿論 이 分析이 實驗的으로 實現되야가지고 잇는것이라고는 말할수업스나 어떠케 分析하려고한 意圖가 存在하고 잇는것이다。

午前의 詩論

=第一篇= 基礎論 (七)

金起林

古典主義와 로맨티시즘(續)

『르네쌍스』에 그端緒를가진 所謂近代精神속에는 이두가지의 相反한 精神이 살고잇서서 드되여 물사히에 調和를 發見못하고 그 둘이 近代의 精神史와 同時에 文明史를 展開식킨것이아닌가 생각한다。

『르네쌍스』 以後의 近代文明 ... 排擊法과가튼것도 이 鬪爭의方式을 說明햇슴에 지나지 안는다。 그래서 오늘의 文明은 그것이 너무나 人間의소리와 肉體를 無視하므로써 가장 病的古典主義의 時代를 이룬것처럼 생각된다。

○

現代의 새로운 古典主義(例를 들면 『흄』이나 『엘리오트』에 依하야 代表되든것)는 文學에서 人間을 肉體를 完全히 쫓차내기를 企圖하야 人間의넘새라고는 도모지 조금도 안는 『쎄잔트』의 ... 何等的藝術을 負重하엿다 勿論 이는 前에도말한것처름 英國에 잇서서 『빅토ー리안』과 그末流의 不潔하고 混濁된 人間的인너무나人間的인 『로맨티시즘』의 傾向에 對한 反動으로서는 充分히 時代的 意義를 가지고잇기는하다。 그러나 그들의 理想하는 完全히 人間性을 抹殺한 藝術—生命的인것에서 아주 斷絶된 狀態에잇는 藝術은 至極히 透明한 知性의 狀態에 到達할지는 모르나 드되여는 한개의 虛無에로 發散하지나 안흘가?

○

허나 虛無에서는 藝術도 人間도 한가지로 消失되고말것이다。

詩『로맨티시즘』의 放任은 人間的 知性만이아니다。 詩에잇서서의 ... 以外의 外在的인 人間的價値의 殺到를 結果하는 亦是 詩를 消失할 發端이 만타 道德이라든지 行動이라든지 思想이라든지 한 人間的인것들이 詩보다 압서서 考慮될때에는 詩 그것은 이저버리우기쉽다。 그中에서도 가장 幼稚한것은 사람의 本能이라든지 感情을 그대로 崇拜하는 素朴한 野蠻主義다。 事實에 잇서서 『로맨티시즘』의 精神이 勃興하든 時期에는 藝術로서는 그러케 成功한 時期가 아니엿다고함은 歷史가 우리에게 暗示하는바다

○

『빠이론』의 征服은 지금생각하면 實로 우수운熱中에 지나지안핫다 十九世紀 初葉은 藝術的으로는 失敗하엿다고 생각한다

知性의文明을 너머서 우리가 意欲하는것은 知性과人間性이 綜合된 人間化한 수척한 ...

世界가 아니면 아니된다 우리들內部의 『센티멘탈』한 『東洋人』을 깨우처서 우리는위선 知性의門을지나게하여야할것이다 萬若에 詩가 被動的으로 現代文明을 反映하므로써 滿足한다면 『흄』이나 『엘리오트』의 古典主義가 바른것이될것이다 그러나 우리의詩속에 現代文明에 對한 能動的인解釋—批判을 求한다면 그것은 그속에 現代文明의發展의方向과 姿勢를 提示하고야 말것이다

○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의 詩는 大體로 얼마나 文明 그것보다 도뒤떨어저잇지 안느냐? 文明그것에 對한 認識이 거진오늘의 우리詩人들에게는 굿세게 把持되여잇지아니 한것도우리들이 怠慢하다는 證據에 틀림업다。 이를 廢棄할만한 怠慢과 그러고自己陶醉에서 우리는 一刻이라도 바삐떠나야할것이다

○

우리는 지금갑작히 文明을버리고 野蠻으로 도라갈수는 업다 歷史를 發展하는것이라고 밋는 사람들에게는 文明은 絶望을 歌映하지는 안는다。 그것은 다못段階로의 發展을 確信시킨다。 來日의 文明은 『르네쌍스』에 依하야 賦課된 휴매니즘과 古典主義가 綜合된 世界일것갓다。 너무나 機械的으로 달아나고만 文明이 肉體의 共動에 依하야 生命的인것에 高揚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古典主義나 『로맨티시즘』의 一方的 高調나 否定이아니고 그것들의 綜合에 依하야 到來할것이 아닌가고 생각한다 (계속)

海外뉴ー스

◎一週五日制斷然好成績

『倫敦發聯合郵信』 一週間의勤務를 五日로하고 二日間의休日을設定한制度는 最近各國에 流行하고잇는데 英國에서는昨年一年間의統計를보면結果는 斷然良好하다고한다。 英國에서 昨年의五日制를採用한工場은 六百七十三、人數는八萬三千百三十六人인데 其結果에對하야 工場主는모ー두 『五日制度는 일의能率上으로나 勞働者의立場으로나前例업는成功이다』고말하엿다。 노팅감의부ー츠藥品會社에서는六千人의 勞働者에五日制를採用한 結果가良好한데鑑하야 永久히新制度採用을 決定하엿다한다。

探報臺

音聲學會의 創立

지난二十四日 斯界의研究家 廿餘人의發起로 音聲學會의 創立을 보게 되엿다한다。 이는 朝鮮의言語科學發展의 한에포크를 지은것으로서 只今에야 創立된것이 오히려 느진感이 不無한것이다。 元來 音聲學(Phonetics)는 聲音學 俗語로는 發音學이라고하야 音語의 音響的方面을研究하는 科學인것으로 이를 歷史的으로 보면 멀리 希臘時代에 그起源을 둔것이다 元來 希臘人은 自國語의 單音에 對하야 相當한觀察을 갓고잇섯고 또印度의 『베ー다』에 關하야 프라ー티샤캬 (prātiśākhya)는 言語音의 極히 優秀精密한 分析을 보혀주고 잇다。 이希臘學說은 로ー마人에 依하야 正當忠實히 繼承되여 十九世紀初頭에 이르러는 歐羅巴學界에 勢力이 잇게되엿는데 其後 比較言語學이 創始되어 梵語가 歐羅巴에 紹介되자 古代印度의 語學研究가 學界에 큰 影響을 波及식히엇스며 이동안 英、獨、오스트리아人 스페인人의 喉頭鏡의 發明等의 著作及 發音機械의 考案等의 歷史的事件이 잇섯스나 音聲學이 참된 意味로의 科學으로써 認識하게 되기는 十九世紀後半이엿다 그리하야 一八八六年에 國際音聲學協會가 設立되여 研究가 더한층 進展하게 되엿거니와 今日에야 비로소 朝鮮의 音聲學會가 創立되는것은 너무도 그느진 感이 업지안호나 『말問題』로 混亂한 오늘날 이의創立은 慶賀할일이다

朝鮮의音聲學會는 混亂된 朝鮮言語整理、外來語、方言等 其他 一般言語學에 對한 根本的 研究가 그任務이니 만치 今後同會의 動靜을 注目하는同時 꾸준한 努力이 잇기를 바라는바이다(一步生)

이비맞고 어엽부게 자라거라……

朝鮮古事研究

第二 檀君朝鮮時代篇 【7】

張道斌

三、검과박의同一

以上에말한것을보아 검은곳神이오 밝은곳明인同時에 그意義가同一한것을알지니 神이곳밝은이오 밝은이가곳神으로 神明을 合하야말하면 漢字로神明이라는것이다 그럼으로 검山과 밝山이 同一한것으로 神明한이의山이라는것이다

六、검國、검잣、박잣

一、검國

高句麗는곳『곰골』이니 『곰골』은 곳『검골』(神國)이라는것이다 검國은곳神國이라는것이다

東明王이 姓을 검으로한故로 그것이轉稱되어 『곰』이라고 呼되야 그를漢字로高로한것이니 東明王의姓이高인것이 新羅의 姓이 朴인것과同一한 意味이다 高句麗가곳『곰골』인것은 日本人이高句麗를 『고마』라고 呼한것을보아 一證據가된다

二、검잣

新羅의都城이金城이오 金城이곳 검잣인바 新羅도最初의國名은검잣인것인즉 검잣은곳神城이라는것으로 高句麗의곰골과同一한것이다 무론辰韓時代부터 검잣이 辰韓의京都이엿던故로 검잣을서울나라로呼하야 서울나라가 新羅로되엿다。

三韓時代에馬韓都城이 金馬國이오 卞韓都城이金官國이던것을보아 辰韓都城이 金城國이던것이 더욱明確하다

三、박잣

百濟는 곳박잣이니 박잣은 밝은이잣이라는것으로 박잣은곳 神明의城이라는것이다 百濟는그 北方에 三角山이곳 박山이엿는 同時에 그城을박잣으로한것이니 그는무론馬韓時代부터 박잣이라 稱하얏던것이다 박잣의意義는곳 高句麗의 검골、新羅의 검잣과同一한意義이다 三國時代에加羅國首都王이姓을 金꼿검으로한것은 東明王의姓이곰꼿高와 赫居世의姓이 박꼿朴과同一한意味로 加羅의國號가金官인것이 高句麗의검골、新羅의검잣과 同一한意味이다。

七、鴨綠江

鴨綠江流域은 朝鮮民族의 最初發祥的生活行路인것은 이미言及하얏다 그런故로 朝鮮人이 各處로 分布된後에도 그 都市附近의 大水를 鴨綠江으로 稱하얏다 百濟는 京都附近의 漢江을 阿里水、郁里河라 稱하얏고 新羅는

京都附近의 漢江을 閼川이라稱하얏고 加羅의 洛東江을 阿里水、郁里河라 稱하얏고 辰韓時代부터 漢江을 阿里水、郁里河라 稱하고 卞韓時代부터 北川을 閼川이라稱하고 洛東江을 阿羅가람이라稱한것이다

鴨綠江의 意義는 何인가 鴨綠江의 古代에 『우ー르』 通用한것은 廣開土王碑文에 『오ー르』라고한것이니 『울江』이 鴨綠의 轉이오 『우ー르』 『우ー로』(우라)의 意義가 곳 京城의 義라 鴨綠江이 곳 『울江』이라 『울』은 古代에 京城이라는 意義가 되는것이다

朝鮮人의 京城

京城이라하고 百濟에서 京城을 慰禮城이라하고 新羅에서 京城을 月城이라한것이 곳 그것이다그러면 京城을 『울』 이라한 것은 곳漢城이라는것인데 因하야 京城附近의江을 『울江』으로한것이다

鴨綠江의本名이 『울江』인 同時에 朝鮮人의分布된 地域의大水를 鴨綠江으로 稱하얏다 그러나 三韓地方에서는 漢江을 都里河라고 稱하얏스나 阿里水라는 것이 正確하되 그外에는阿里、閼、阿羅로 稱하얏거니와 扶餘地方에서는 『울江』곳 鴨綠江으로稱한것이 더욱正確하얏나니 北扶餘解慕漱王의記錄에日 解慕漱王이 柳花를 鴨綠邊室中에맛낫다한것을보면 扶餘에서 松花江을 鴨綠江으로稱한것이오 高句麗時代에 白頭山北의 松花江을 鴨綠河라稱한것을보면 扶餘地方(滿洲)의 大水를 『울江』이라稱한것이 더욱正確할 것이다

八、平壤

現在의平壤府는 檀君時代부터 平壤이라稱하얏는데 平壤의語義가何인가 그를대개 釋明코저한다

一、平壤은漢字의義로보면平한 壤이니그러면平壤의地形을보아平壤이라고名稱한듯하다 그러나 檀君時代에 漢字로地名을 作하얏슬理업고 더욱廣開土大王碑文에 平壤을平穰이라고書한것을보면 平壤은確實히朝鮮語로된 일흠이오 漢字式意義는업는것이다

二、或은曰平壤은벌나니 벌나는벌나라이라는것이라한다 그러나平壤과벌나는 그音義가通하지 못한다

三、엇는생각하야보면 檀君이 中國의堯와並立하야 서로交通하얏다는傳說도잇스니 그러면檀君이堯의京都인平陽이라는地名을輸入하야 朝鮮의京都도名稱을平壤이라고한듯하다 그러나檀君이朝鮮의京都名稱을 朝鮮地名으로 하얏슬것이오 中國地名을引用하얏슬理업고 더욱檀君이堯와交通하얏다는말은 不可信의말이다

그러면平壤의語義는과연何인가 그語義는 平壤이곳王城이라는말이다 그理由는아래와갓다

歐洲映畵專門配給 東和商事京城支社

支社長을高氏로

歐羅巴映畵를輸入하는 東京東和商事映畵部에서 從來부터市內西大門町高仁文氏에게 委託配給을식엿든바 今番에 朝鮮支社를 設置하고 高氏를支社長으로 任命하얏다는데 該支社는市內西大門町一丁目六七

新刊紹介

◆漢學通信 第三十八號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發行 振替京城八八九五番 定價一部五錢

◆時代劇 四月號 京城府 ... 一三〇 時代劇社發行 振替京城一六五六七番 定價五錢

◆國民新報 五月號 ... 定價本誌 ... 五拾錢 (臨時大增刊號)

◆文章 ... 九十八 文章社發行 振替京城一三一九〇番 定價七十五錢

◆카톨릭靑年 五月號 京城府 ... 町一 카톨릭靑年社發行 振替京城一二三四六番 定價十五錢

黑風

韓龍雲 作 金龍鎭 畫

지주와 소작인 18

한숙은 무엇보다도 말을드르면 먹고살수가 잇다는말에 귀가번쩍 띄엿고 말을듯지 아니하면 소작을 부칠수가 업다는 말에 두려운생각이 낫다

『그러면 무슨말슴이든지 듯겟습니다 어서 하십시오』

한숙은 이말을하면서 자못조급한빗을 띄엿다

『다른말이아닐세 자네아들의 혼인을 파의하면 어떠한가』

『혼인한것을 파의하다니요』

『자네아들과 순보의딸과 정혼하얏다지』

『예』

『그것을 파의하고 고만두란말일세』

『고만두면 엇지합니까』

『고만두면 고만두는것이지 엇지하단말이 무슨말이야 그리하고 자네아들은 더조흔데로 장가를갓스면 고만이아닌가』

한숙은 하도 기가막혀서 말이업시안젓다

『웨말을 아니하나 가타든지 부타든지 말이잇서야지 그러커에 내가처음에 무슨말이든지 드려주겟더냐고 뭇지아니하든가 그러고 말을듯고 아니듯는 결과가 엇지되겟다는것까지 다 말하얏지 그러니까 자네가 무슨말이든지 듯겟다고 하지안헛나 그리고서 말을하니까 웨 대답이업나』

하는 은서은 조금 불쾌한기색으로 말을하얏다

『글세올시다 생각하야 보겟습니다』

『생각하야볼것이 무엇잇나 드를수업거든 드를수업다면고만이지 억지로 드르라는것은 아닐세』

하고 은서는 한숙을노려본다

『아니올시다 아니듯것다는말슴은 아닙니다 그러대 대관절 무슨일로 그러십니까 그일을 말슴하야 주십시오』

『다른일이아닐세 순보의딸을 내가 다려오랴고 그러네 웨그러나하면 내가작년에 엽흘 갓다가 순보의딸을 보앗는데 예쁘기 무던히 이뻐서 내가 다려오랴고 생각하엿스나 미처 순보에게 말을하지 못하엿더니 그런데 드르니 자네아들과 정혼하엿다고하니 순보의딸로말하면 내가먼저 유의하엿고 하던 자네아들과 파혼을하고 내가 다려오더하야도 그대지 틀린는일이 아닐세 그러고 자네가 정히듯지안는다면 나는 나대로 할도리가 따로잇것지 가부간 대답하게』

하고 말끗을 딱구르는것을

『아니옷는다는말슴은 아니오나 저혼저는 말슴할수가 업사오니 집에가서 순보와상의하야 보것습니다』

『순보와 상의할것이업네 순보는 드르자고 자네말만하게』

한숙은 은서의요구가 올치못한줄을 알면서도 여러가지관계로 그말을 거절할수가업섯다

『저의생각으로는 부부대로 드를생각이오나 순보의마음이엇더할는지 모르것습니다』

『그러면 자네생각에는 확실히 듯것다는말이지 그런대순보의 생각만을 모르다는말이지』

『그러습니다』

『그럼듯한 말일세 그러면 순보를 만나서 삼조대면을 하며는 조치안켓나』

『그러케까지할것이 잇습니까 제가가서 말슴해서 되도록 하올지오』

한숙은 순보가 은서의 집에 와서잇는줄도 모르고 또는 자긔네까지 상의를하게되면 정혼한 당자들과 집안사람들의 의견까지라도 참고하야서 마음대로 결정할수잇는데 순보를 다려다가 삼조대면을 하게되면 서로 은서에게 거리끼어서 하고십흔말도 못하게되고 조용나구지나 허락을 아니할수가 업게되것스므로 그러케 말을한것이엇다

『아니야 순보를 새삼스러케 오라고 할것도 아닐세 순보가 마침 내집에 와잇네 삼조대면을 하며는 조치안켓나 매사는 분명히하는것이 조흐니』

하고 은서은 하인을불러서 순보를 다려오라하얏다

責任保證·御使用後不良한경우는 半個年間은無料新品과御取換함

防水雨具 市價의半額 絶對保證

完全防水加工 市價의半額以下

寸法은 모다鯨尺이다

男子通學防水マント 二重布 中ゴム 鯨尺、頭巾付、茶褐色

特製防水マント 二重布 中ゴム 鯨尺、頭巾付、茶褐色、自轉車用袋付

三重張袷最上防水マント 最高五個年以上の高級耐久防水

高級表綾地防水マント 中ゴム引、二重布紳士用 鯨尺、頭巾付、自轉車用袋付

防水レインコート 洋服紳士用の最高好品 二重布 中ゴム 鯨尺、頭巾付、茶褐色

表綾地防水レインコート 中ゴム引、二重布、紳士用 鯨尺、頭巾付

勞働用防水モジリ 商店用大好評の 二重布 中ゴム 鯨尺、頭巾付、茶褐色

白裏萬年モジリ アメゴム スック 耐久力三個年以上 鯨尺、頭巾付

註文規程

岐阜市加納本町三丁目 合資會社 服部商會防水部 電話二四四〇·二九九四(振替名古屋四五四九)

十年來의新記錄 大麥價格大暴騰
五升一斗에八十錢의高價로 細窮民層이去益困境

경북 청송군 외관곡물시장(穀物市場)에서는 재방곡물가격이 나날이 등귀하야 일반소비대중은 대곤란중이라는바 더욱 세농궁민(細農窮民)의 유일의 식량인 「보리」(大麥)는 오승두에 팔십전으로 당지에서는 십여년래의 처음되는 기록이라고한다

火災民을爲하야 婦人會救援活動

【奉天】 무보=경북봉화군재산면 남면리(才山面南面里)빈민부락호 일천팔이 화재로전멸되어 재민삼십여명은 그생명이 식료등전부화와 강다한는후 보비어나와 화재가날 어나동일오후아시에 재산면부인회에서는 긴급동회를 열고 구호반을조직하야 된장, 간장, 식염, 의복등을수집하야 재민에게 배부하여주고 계속하야 구호품을모집하고잇슴으로 일반은 그들의아름다운동정에는 눈물을흘린다고한다

在滿同胞家屋 二棟八戶全燒
奉天西塔의大火災

【奉天】 지난이십일밤아홉시반경에 봉천서탑(西塔)김병로(金炳魯)의 집부엌에서 발화되어 삼십시간에 불길이 퍼저 연소되는중 발화지대가 제승업(製繩業)을하는 니만차부근일대가 크게위험하엿스나 소방대(防消隊)의활동으로 동열한시반경에야 진화되엿는데 연소된범위는 이동칠호(二棟七戶)로 전부우리동포들의 가옥이라는데 손해정도는 약삼천원가량이라하며 발화원인은 실화인듯하다고한다

行人避하랴다 貨物車顚覆

【尙州】 경북상주군함창면구향리(舊鄕里)입구에서 지난이십오일 오전구시오분경에 경북봉화군 춘양목재주식회사소유 경북제구십구호 화물차운전수 진귀헌(陳基憲)(二)이 가동회사사원리유창(李裕昌)과동승하고 상주를발하야 함창읍내를향하야 돌아가는도중 함창읍내 「카—부」를 돌아진행중 리안면흑암리(利安面黑岩里) 임모(任某)(二)도역시 함창읍을향하야 도보로 가다가 경적에놀내여 피하랴고한 것이잘못되야 자동차와충돌되야 두부와족부에 약간의부상을 당하게되자 자동차도전긔임모를 피하랴고 언덕으로달니게되며 크다란 병목(並木)과충돌되며전복되야자 동차전면이 파손되얏는데다행이 운전수와전긔리요창두사람은무사하엿다한다

稅關吏追擊에 橋上에서落傷

【圖們】 국경에서만 볼수잇는 생명이 귀중한도 이저버리고 오십미돌이나되는 놉흔다리를 뛰여나리다가 중상을당하여 방금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밧고잇는 사람이잇다 원적을 경북경주군(慶州郡)에 두고 현재도문시회막구(圖們市灰幕區)에거주하고잇는 김윤언(金潤彦)(三○)은매일매일 대안남양(南陽)에왕래하면서 구루마를끄을며 근근히 생활하여가든바 이십이일에도 남양(南陽)에갓스나 구루마 품일이업스므로 오후세시경에 양복바지하나를 사가지고 밀수하려다가 그만중국세관리에게 발각되여 몰수를당할지경임으로 를 오 남양(南陽)으로 도망하는것을 세관리는 자전거로 추격하여 할 수 없이 오십미돌이나 되는 국제철교에서 뛰어나리다가 외롭히 중상을당하여 현장에서 혼도상태에잇는것을 곳남양병원(南陽病院)에 운반하야 응급수당을가 하엿스나 생명이 위태하다고한다

窮乏이나흔慘劇
굴믄끄테男便과서로言爭코 自殺하려다子息만죽여

【裡里】 주림에견대지못하야어린자식을 다리고자살을하랴다가 어린자식만 물속에 장사하고경찰서에 발각되여취조를당하는 묘령의 미인이 지난이십사일 리리경찰서 사법계에서 엄중한취조를 당하고잇는사실—그는 익산군 북일면 영등리(益山郡北一面永登里)김영옥(金永玉)의안해 전중간(田中간)이라는당년 스물한살되는꼿따운 녀성으로지금으로부터 삼년전에 전긔김영옥과 결혼하여살어나오다가 작년십일월에는 사랑의결정인 귀여운아들까지낫케 되엿스나 띄처오는생활난은 갈사록그들에게 고통을주워나오다가 지난십칠일에는 외조일주리든 남어지어하게 나가자남편으로부터 그러케할테면 부자남편을어더가서 잘살라는등욕설신갈신말다툼을 하다가 안해되는 중간은즉시 어린애를업고 그곳서약구정가량되는 만경수리조합저수지로 달려가서 어린애를 물에빠저죽을 각오를하고 뛰여들어가자 길에 지나가든행인에게 발각되여 전중간만은 구원하엿스나 어린애는 구하지 못한사실이 경찰의귀에알니게되자 진상을 알고자 취조를하는것이라고 한다

新羅時代의遺物 宣川普光寺燒失

【東林】 선천군산면(宣川郡山面)보광사(普光寺)는 일천오백년전 신라때에 건설한것으로 장구한력사를 가지고잇든바 지난이십사일 오후십이시경에 난데업는 불이나서 서방일부만남기고 전소되엿다는데 원인과손해는 아직조사중이라한다

洪城에腸窒扶斯

【洪城】 요사히홍성군장곡면내에는 장질부사가창궐하야 현재환자가칠명이요 사망자가 두명인데이외에도 각종전염병이 류행하고잇서 일반농가에서는 자못불안상태에잇다한다

城津에出沒은 竊盜犯人逮捕

【城津】 이른봄부터 성진읍내에서자조발생한 절도사건은 성진서에서 그정체를알지못하야 오래동안고심하든바 그범인은 지난십팔일에 옥정에서 성진서원에게체포되엿다는데 그는황해도 옹진군봉홍면거지리 출생 오봉선(吳鳳仙)(假名)(三○)으로 작년십이월에 함흥형무소를 나온절도 전과자라는데 출옥이후 봉청에서복건단천에서이건 성진에서 십여건의절도사실을 자백하엿는데 피해액은 수백원에달한다고 한다

大規模로擧行될 兒童愛護週間
五月二日부터一週間

【平壤】 오월이일부터일주간을아동애호주간으로 정하고 평양부에서는 선전포스터—삐라 등을 산포하여 일반장년자들에게 아동애호의 정신을고취하는 일방각화교에서는 어머니회를 개최하고 아동오천명을 뽑바에 난호아악대를 선두로고행렬을 하기로되엿다 칠일동부내 이십일개유치원아 이천명의 련합대야유회가 잇고그남하로동안에는 부내각리발소에서 목세미만의 어린애들을무료로 리발을하기로 되엿스며 무료입욕(入浴)무료건강상담등 대규모의계획을 진행키로되어착착준비중이라한다

多年要望하든 錦江橋架設

【沃川】 옥천, 보은량군민이 다년간 금강교가설에대하야 운동을하여오든바도당국에서삼만오천원의 공사비로 금년내로 장수교를가설키로되여 방금지질을 조사중이라한다

衛生展覽開催

【沙里院】 황해도경찰부와 사리원서의 련합으로 전염병의예방과 위생사상을 보급을 시기기위하야 오월십일부터 삼일간에 위생전람회를개최한다는데 장소는 소학교와무덕관의두곳으로 한다하며 실시할사항은다음과갓다 고한다

一、衛生宣傳活動寫眞
二、衛生宣傳「포스타」「비라」配布
三、健康相談及無料診察
四、其他必要事項

바람마진게집애 劇團따라無斷出家

【城津】 함북부령 리량숙(李良淑)(一七) 동김상집(金尙集)(一九)는지난십칠일 채게덕(蔡桂德)(二○)동 아츰 무단출가하엿다는 계출이엿서 소관함공서에서는 각지에수배하고잇는중 전기삼명은 이십일일성진에서 개연중인 극단 신무대(新舞臺)일행과 함께 래성한것을 형사들이탐지하고 성진 유치장에 보호중이라는데 혹은 배후에유인의마수나 잇지안흔가하야 극단관계자를취조중이라고한다

電燈架設促進

【鏡興】 긔보=함남진흥시(鏡興市)에는아직까지 전등가설이되지못하야 도시발전상 막대한영향이잇다함은 긔보한바이어니와 동시내 일반유력자간에는 이를 수삼년전부터 문제걸이로 삼아오던중 금반 일본드렛지회사(日本드렛지會社)에서 전긔를 가설하게되므로 이긔회에 진흥에도 점등(點燈)할 계획이잇다하야 진흥번영회(鏡興繁榮會)에서는 긴급의원회를개최하고 시민대표로 윤대헌(尹大憲) 원삼치(元參治)량씨를 지난 이십오일에 원산전긔회사(元山電氣會社)에진정하엿다한다

五十老婆飮毒

【開城】 개성부내 궁정(宮町)삼백팔십번지에거주하는정홍진(鄭鴻珍)(五○)은 지난이십오일 오전십시경에양재물을먹고 고민하는것을 정씨의정부우정순(禹貞淳)(五○)이 가발견하고 도립개성의원(道立開城醫院)에서응급치료를 하엿스나생명이 위독하다는데 그내용을 듯건대 정씨는 장단군진서면대원리(長湍郡津西面大院里)에원적을두고 이리저리 방랑생활을하여가며 나무장사와 장작패기를하야 모은돈으로 십원을 가지고 이전부터알던술장사전귀우씨(禹氏)와 금년이월부터동거하여오든바 최근에 와서는 우씨의태도가 자미업는것을 비관하고그와가티 자살을 긔도한것이라고한다

地方人事

◇崔仁範氏(龍岩浦警察署司法主任) 新任人事次龍岩浦支廳來訪

◇北中國遠征가는平壤蹴球團(平壤驛에서)

新興郡下各面에 傳染病이大蔓延
死亡者벌서三四人

【新興】 요사이신흥군하에도전염병이 발생하야 동군원평면(元平面)에서는삼사명의 사망자까지내이고도 의연창궐하는중 이라고하며가평면(加平面)과영고면(永高面)지방에도발생하엿다는데 더욱히영고면 송흥리에는 성홍열까지발생하야 주민은 불안중에잇다는바 소관신흥서에서는 그방멸책에부심중이라고한다

開港記念으로 競走大會開催

【群山】 오는오월일일은군산개항(開港)삼십칠주년에 해당 하는바 군산체육협회(群山體育協會)와상공회의소(商工會議所)에서는당일 을긔념하기위하야 전긔량소의 주최로 상점순방(商店巡訪) 경주와 마라손경기를개최하기로하얏다는 데당일의성황이 예긔케된다고한다

劉區長頌德碑

【驪州】 려주군북내면주암리(北內面住岩里)유석호(劉錫浩)(六○)씨는약십오년동안을무보수로구장직에재임하야 리민의리익을위하야헌신적노력을 하여왓슬뿐아니라리민을위한일이면무엇이나 자긔일과 다름이업시 책임을지고 진력처결해주며 그외에도 리민중생활난으로 타처로이 주하라는자에게는 그리 부유치도 못한 사재를기우려 구제해주는일 방 직업을수선해주어서 생로를개척하여줌으로 리민은누구나 씨를 존경하여 전군칭송이놉든중 작년봄 동리에간이학교를 설립할에도 유일한 공로자로서 리민들은씨의 독후한성의를 긔념키위하야 동리입구에 송덕비를 세웟다고한다

多年宿望이든 順天農校開校

【順天】 수년간 대망하든 전남순천농업학교(順天農業學校)는금년으로개교하기로확정되야광주(光州)농업학교교유정전말회지(井田末喜)가 교장으로임명되야동일간 부임할터이고학생모집인수는오십명인데 입학지원자는 상당히만흘 이라고예상된다고한다

不義의사랑이 세生命을끈어

【錦山】 봄바람이 사람의 심신을흔드는이때 한거롭지나친 사랑으로 말미아마 한쌍청춘이 애닯게도 한만흔이 세상을등진사실이잇다— 서천군마산면시선리(舒川郡馬山面時仙里)에사는리현서(李顯西)의이남 리부남(李富男)(二○)은 이웃에사는 내종사촌되는김소저(金小姐)(二○)와 약 이삼년전부터 서로 사랑을 속삭이여오든중 어느듯 김소저의 몸에는 사랑의씨가 깃들자 이사실을안 두남녀의 부모는날로 구박이 자심함으로 김소저는약팔 구일전에 무단출가하야 이래행방불명하던중 돌연 지난이십일일오전십시경 동면 봉암저수지에부란 되시체로서 떠오르바 이참경의사실을안 전긔리부남은 자긔외소행을크게뉘우치고 즉석에서 결항자살을하엿다한다

그女子의一生 【89】
春園 作 夕影 畫

올남이가 요새에는 문영을 작난감으로가지고 노는 줄을 형식은 잘 안다. 그러치마는 형식은 그것도 무론 간섭하지를 아니한다. 오늘 올남이가 형식더러 극장에를 오자고 조른것도 문영을 위함인줄을 알지마는 따라오는 줄을 알지마는 자긔와 강영자는 허수애비로 따되는체 하고 올남을 따라온것이엇다. 대관절 누이올남의 작난시감이 되는 문영이라는 것이 대체 어떠케 생겨먹은 작자인가 좀 연구해보자 하는 호긔심도 업지는 아니하엿스나 올남의 작난시감이 되는 것을보면 애초부터 멘뭄어치 안된는 작자인줄은 잘 안다. 형식은 상태의 깐깐하고 표

현과 가려 온순하고 깁숙한이 잇는것 갓다. 형식은 병결의 이러한 성격이 조핫다. 형식 자신에도 이러한 유유한 긔분이 업지아니하지마는 그래도 좀 갈피도 잇고 야심도 잇고 약간 심술도 잇슴을 저 스스로서도 잘안다. 병결의 팽중재월을 따라가자면 천리만리라고 형식은 병결을 대할때마다 늘 생각하다 거든」

「상래놈따위야 쥐새끼지마는 병결이녀석은 사자의 긔상이 잇다 하고 형식은 가끔 찬탄한다.

지금 이 극장에 와 안저서도 문영이가 열심으로 자긔의 박학과 예술에 대한 식견을쏘다노흔 자리에 상태는 자긔도 거긔 대해서는 소매하지안타는

리부동한것을 미워하지마는 것 호로 조흔 친구로 대접하엿고 병결에 대하여서는 형식은 상당히 경의를 표하고 잇다. 임학재를 장래에 극히 유망한사람으로 존경하여서 올남과 혼인을 시킬 생각도 가지고 잇섯고 또 올남과 학재와 서로 교제할 긔회도 만들어주엇지마는 올남이가 빗두루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그만 그희망을 버리고 말앗다. 그리고 도로혀 양전한 강영자와 임학재와를 매저줄까 하는생각까지 가젓스나 워낙 물간섭주의, 자유주의자인 형식은 그것도 자긔네의 자유에 맛겨버렷다.

병결에게 대한 형식의 존경은 무론 학재에게 대한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형식은 병결의 부득요령이지마는 팽중재월가리도모지 사물에 구애할도 업는 성질이 조핫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더라도 별로 홍금을 열어 말하는 일도 업지마는 홍금을 열 별히 홍금을 열 필요도 업는 것 가탓다. 언제나 병그레 웃는 낫친 병결의 홍금에는 잠을쇠도 빗장도 잇는것 갓지아니하엿다. 그러라고 속이 발따한것이어니라 그 속에 깁흔 삼

것을보이라고 혹은 찬성으로혹은 반대로 혹은 보청으로그말에 참예하는데 대하야 병결은 듯는듯 안 듯는듯 그저 벙글벙글하고만 안젓는것이, 빈정대고 안첫는 저보다 품격이 놉흔듯하야 형식은 병결을찬탄하는 생각을 가젓다.

막이 열렷다. 관중의 우리가튼 바장이 일어낫다. 금봉은 일변 문영의 영문학론을 듯고 일변 아까 올남에게서 들은, 손선생이 학교에서 쪼겨나서 동경으로 온다는 말을 근심하고 잇다가 막이 드르르 것기고 관객석의 전등이 꺼질 때에 눈과 마음을 무대로 돌렷다.

무대면은 줄리엣의 아버지의 고대식 건물의 일부, 문에 접한 부분이엇다. 로미오가 친구들과 함께 넘어다리까지 내어노인 옷을 입고 만도를 어깨에 걸고 가느다란 칼을 차고 두리번거린는 팡경이다. 창으로 불 빗이 비초이는 밤경치다.

「인제는 이야기를 그만하고구경이나해」

하고 형식이가, 아직도 논쟁을 계속하고잇는 문영과 신상태를 제방햇다.

魚乙彬萬病水錠은 萬病最高의治病劑

美國極上品 미국극상품

어을빈 魚乙彬

만병수정 萬病水錠

一瓶定價 金一圓九十錢

本病 봉병 痰痛 담통 疳瘡 감창 咳喘 해천 骨痛 골통 遺病 유병 瘰癧 나력 積病 적병 喘慢症 천만증
皮風 피풍 腫氣 종기 滯症 체증 久嗽 구수 癎症 간질 腎熱 신열 吐痰 토담 浮腫 부종 連珠瘡 연주창
梅毒 매독 脚氣 각기 神經痛 신경통 筋肉痛 근육통 遺毒瘡 유독창 半身不隨 반신불수 腰痛症 요통증
骨節痛 골절통 數溺症 삭뇨증 楊梅瘡 양매창 動脈硬化症 동맥경화증 其他內外慢性病

보재약정 一瓶定價 金二圓
慢性胃腸病 만성위장병 動脈硬化 동맥경화 體質虛弱 체질허약 神經衰弱 신경쇠약 精力減退 정역감퇴 心臟諸症 심장제증 重病回復 중병회복 食慾不進 식욕부진

게랍 一瓶定價 金三圓
感冒 감기 瘧疾 학질 毒感氣 독감기 寒熱症 한열증 腸疾 장질 身熱 몸열 膨腹症 별복증 虛弱症 허약증

금재고약 一個定價 金五十錢
痘瘡 두창 瘇氣 종기 胎毒 태독 火傷 화상 그외에 모든 피부에 나는 종기

보옴약 一個定價 金五十錢
마른옴 진옴 그외에 모든 옴

廣告冊子無代進呈
地方代金引換酬應
僞造藥特別注意

광고책을 청구하시면 그저 붓처드립니다 먼저는 광고책자를보시오 몸을위하야 의심하실것업시 약을 복용하시오
일본과 조선안에는 어나곳이든지 대금인환으로 붓처드립니다 주문하실때 귀하의 주소와 씨명을 분명히 기록하시오
어을빈의 약을 모방하야 만들어 파는 일이잇사오니 약에나 광고에 어을빈(魚乙彬)이란 일홈 글자를 주의하시오

朝鮮釜山 魚乙彬製藥株式會社
電話【長】一九三九・振替釜山五〇〇

魚乙彬 어을빈

經濟解說

重視되는 銀價
그 換算方法內容 ②
…申 泰 翊

前回에서 말한바와 가티 銀價는 國際經濟上 重要性을 띠여가 結局에는 歐洲大戰前 銀本位時代 或은 그 近處에 이르게될는지 몰으는 狀態압에 잇다 따러서 압흐로의 銀價動向 即 오늘의 銀勢가 어느程度까지 重視케될가 함에 가장 注目을 끄은다 그럼으로 國際間의 銀價換算 即 倫敦銀塊市場또는 뉴욕銀市場의 市勢를 가지고 朝鮮의 銀市勢은 곳 하면 어떠케 算出하여야만 될가함을 알어둘 必要가 잇다

×

그런데 銀市勢를 말하는때는 「온쓰」에 얼마이라고 하는 그온쓰를 먼저 말치안흘수가 업다 則 銀價의 一온쓰라고 함은 英國과 米國에서 銀에對한 重量單位로 쓰고 잇는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온쓰에잇서는 두가지의種類가 잇는바

(一) 常衡온쓰=이것은 英國衡量單位「그레인」으로 四三七、五그레인이 一온쓰、佛國衡量單位「그람」으로는 二八、三五〇五그람이 一온쓰이며 日本의匁目로는 七匁五六〇이 一온쓰에該當하다

(二) 金衡온쓰=이것은「트로이온쓰」라고도 하는데 그레인으로는 四八〇 그레인、그람으로는 三一、一〇三四八그람이며 또匁目로는 八匁二九四二五에 該當하다

以上 두가지의온쓰中 英米兩國에서 銀重量으로 쓰고잇는것은 金衡온쓰 即 八匁餘가 一온쓰로된單位의것을 쓰고잇는터이다

×

다음에는 銀塊의品位가 어떠케 되어잇는가 하는點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金塊의含有純分을 말하는것과 가티 銀에잇서도 그含有純分의 程度가 어떠한가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即 倫敦銀塊의 品位는 千分의 九百二十五、뉴욕銀塊의品位는 千分의九百九十九이다 그러고 以上兩銀塊品位에對한 貨幣上 呼價單位도 英米兩國이 다르다 即倫敦은 「펜스」로써 하고 뉴욕은 「仙」으로 計算表示되고잇다 이와가티 倫敦銀塊의 品位는 뉴욕銀塊보다 銀含有純分量이 적은것을 알수가 잇다

×

그런데 世界的으로 銀價를 말함에는 倫敦銀塊市勢 또는 뉴욕銀塊市勢를 든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 世界經濟의中心을 倫敦과 뉴욕이 잡고잇는 關係와 그두곳에는 銀塊市場이 相當한地位에 잇는 때문이다 그럼으로 이兩市場의 市勢如何가 國際間銀價를 左右하고 잇게되고 짜라서 銀價를 말함에는 먼저 倫敦、뉴욕銀塊市勢를 알어야만 正確한市勢로 된다 이런 때문으로 그兩市場에 對하야 말할必要가 생긴다

▲倫敦銀市場=英國은 銀을 産出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데 不拘하고 倫敦銀塊市場이 世界의銀價를 支配하고잇는것은 무슨까닭인가 하면 銀은 녜전부터 倫敦이 國際金融의中心地가 되어오고 巨額의 對外投資가 잇서오며 그外에 또는 東洋貿易에잇서 覇權을 잡고온다 그中에잇서 印度는 그關係上으로 되어잇다 이와가튼 諸事情으로 銀의賣買에잇서 倫敦이 中心으로된理由가 이곳에 잇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英國은 産業革命以來 商工業、貿易、金融等의 發達로 世界經濟中心의地位에 잇게되고 짜라서 國際貿易、國際金融은 相對國과 直接으로는 行치안코 倫敦을 經由함이 便利케되엇다 그래서 銀에잇서도 銀産國이 아니며 또는 金本位國인 英國倫敦을 거치게되야 結局에는 倫敦銀塊市場의 市勢가 世界的으로 銀에對한 標準價가 되고만것이다 (未完)

中國銀輸出禁止
二十七日부터實施
稅關에서許可證交付拒絕

【上海二十七日發電通至急電】中國稅關은 銀輸出의 許可證交付를 拒絕하고 今日로부터 事實上의 銀輸出禁止를 實施하얏다

天井不知의銀價
世界最高價現出
紐育銀塊八一仙六

【通紐育廿六日發】連續的狂騰인 紐育銀塊市場은 二十六日에 또四仙이 急騰되어 헨리하문商會公式市勢는 八十一仙六으로되어 即一九二〇年十二月以來의 新高價를示하고 一昨日政府發表의 新産銀買上值 七十七仙五七을 上廻하얏스며 또倫敦銀塊市勢도 七十八仙八分의五(三十六片八分三)을 本日의米英爲替로換算한것으로 引離하야 世界最高價를現出하얏다 但 先高豫想濃厚化에依한 實物薄은 前日보다 一層激甚하야 이때문에 出來高가意外로적은것은 倫敦其他世界各地의 銀塊市場이 그軌를가티하얏다 市人의興味는 夕刻에亘하야華盛頓에서 行한 財務長官의銀對策協議가 明日如何한結果를 生할지 關心을가지고잇다

倫敦銀塊도新高價

【電通倫敦二十六日發】二十六日의倫敦銀塊市勢는 二十五日에 繼續하야 更히 現物、先物共히 一擧一片八分의三高로 狂騰을告하야 現物三十六片四分一、先物三十六片八分〇三의 新高價를示키에 至하얏다

東京銀市勢
大正九年來新高價
水曜會三圓十錢引上

【電通東京電話】銀市勢는 天井不知의 急騰狀態로되어 二十七日入電의 海外市勢도 依然續騰을 告하얏슴으로 水曜會에서는 이것을굿고 同時에 建價를一擧三圓十錢三厘 引上하야 一瓩八十六圓九十八錢一厘로 改訂하얏다 本日의 東京市內銀市勢는賣一匁三十四錢(前日보다 一錢一厘高)買三十錢(一錢高)로騰貴되고大正九年以來의 新高價를示하얏다

京城市中市勢

二十七日의 京城市中市勢는 賣一匁三十三錢 買一匁二十八錢이엇다

自給肥料增産 二期計畫樹立
◇…主任官協議會를開催하고 根本解決策講究

總督府가 昭和六年으로부터 十個年計劃으로 進行되어오는 自給肥料增産計劃은 今年度로써 完了되고 다시第二期增産計畫을 樹立하라고 總督府農産課에서準備를進行中인데 第一期計畫으로 堆肥六十六億貫綠肥八億貫合計七十四億貫을目標로實施되야 八年度末實績은堆肥五十六億貫綠肥十五億貫으로 綠肥는豫定의 倍額을 採近한數量이며 堆肥도十年度豫定의 六十六億貫을 超過하엿다 總督府는 第二期計畫을樹立하기 前 不遠에 各道肥料主任官會議를 召集하야 具體的計劃을 하기로되엇다 이會議는土性調查 金肥共同購入과 共同組合 自給肥料의 三問題를 中心으로 協議할 터인바 朝鮮肥料問題의 根本的解決策을 어드라는 重要會議이라고 注目을 끄은다

滿洲保險統制

滿洲國의 損害保險統制는 決定되어 朝鮮火災를 비롯하야 日本內地保險會社의 支店 支部는全部引揚을 시키게되엿다 新設保險會社에 依하야 滿洲에의 保險事業을 統制하고 獨占事業이 되게하며 日本內地朝鮮保險會社의 新規進出을 禁止하게 되엇다 旣設會社의 支店支部의 撤退에 對하야서는 投資額을 新設會社의 株價를 按算하야 이것을 交付키로되엇고 朝鮮火災도滿洲로부터 全面的으로 손을떼게되엇는데 火災保險會社本部로부터는 近間代表者를 滿洲國에 派遣하야 折衝하리라한다

先高豫想賣惜으로 米資金回收遲延
銀行의資金計畫變更?

米價의昂騰과 先高豫想에依한賣惜으로 各銀行及東拓의米穀資金貸出高는 豫定額을 超過하얏슬뿐아니라 年初以來回收期에入하얏슴에도不拘코 入庫米를處分하는者極히僅少한때문에 米資의回收는遲遲不進捗이오 이때문에銀行方面의 金融의影響을及하고本年度의資金計劃에 多少의變更을不得已하게하는情勢에至하얏다 如斯한現象을招來한것은 主로米穀統制法의補强工作實現을 豫信한때문으로서過般의議會에서米穀統制法의 補强工作案이 流産된直後 一部에서는 入庫米의處分物을出이豫想되엇섯스나 米價는依然堅實하야 正相市勢도 强調를持續하고豫想되던것가든處分物은거의出現치안어 自然米資의 回收도遲延狀態로 推移되고잇서 從하야各銀行共히 今後의米價의變動에는深甚한注意를하고 適當히融資米의處分을 慫慂하고資金의回收에善處할方針으로臨할모양이라한다

米倉在庫高

米倉會社의 二十五日 現在 在庫高는 百六萬千六十一石으로 前月에比하야 四萬三千百八十四石減이다 (單位石)

▲釜山 二一、四〇、九八一 ▲馬山 七、九八四 ▲鎭南浦 七、五二八 ▲木浦 九〇、九九七 ▲群山 一六五、三七三 ▲江景 一五、六〇六

金組聯合會 貸出利下
四月一日遡及

金組聯合會에서는 數日前 金組에對한貸出金利를 내려 現在新規貸出利率은 長六分六厘、短期六分七厘인데 그利率은 新規貸出만 適用되고 既往貸出에는適用지안헛슴으로 金組聯合會는總督府財務局의 組合員負擔의輕減方針에 順應하야 數十萬圓의剩餘金의犧牲을 覺悟하고 既往貸出利率六分九厘以上을 六分八厘로 低下하고四月一月에 遡及適用할을 決定하엿스며 當局의 認可指令을따라서 四月一日부터 各道의金組에 通牒을發하얏다고한다

殖産公共産業 貸出總額
二億四千萬圓

朝鮮殖産銀行의 三月三十一日現在 公共産業貸出은 二億四千六百二十二萬七千十圓으로 이것을用途別로보면 最多額은 土地 家屋의 千三百七十七萬圓、그다음은 商業九百八十四萬圓、商債整理八百五十八萬圓、交通運輸와 土地改良의各七百萬圓臺인데 그詳細는如左하다

用途別	口數	金額(千圓)
金融組合聯合會	[illegible]	[illegible]
行政	[illegible]	[illegible]
衛生	[illegible]	[illegible]
交通運輸	[illegible]	[illegible]
水利事業	[illegible]	[illegible]
土地改良	[illegible]	[illegible]
農林業	[illegible]	[illegible]
畜産業	[illegible]	[illegible]
工業	[illegible]	[illegible]
水産業	[illegible]	[illegible]
電氣瓦斯	[illegible]	[illegible]
土木營造	[illegible]	[illegible]
鑛業	[illegible]	[illegible]
商業	[illegible]	[illegible]
土地家屋	[illegible]	[illegible]
商債整理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備考二月末高	[illegible]	[illegible]

朝鮮米運賃協定
總督府서積極的調停

朝鮮米夏節運賃은 協定決裂에依하야五月一日부터 自由積取開始의情勢인데 表面調停으로부터 一旦손을끈은總督府도形勢를重視하고 妥協機運을釀成하고저 「鮮航會」穀物聯合會兩者에게 警告를發하고 內部的妥協工作을進하야 「鮮航會」側은 總督府作成의 協定原案에贊할수업시 承諾하게하야 目下形勢는 穀聯側의自省如何에依하야 妥協點에諧할수잇기에至하얏다 從하야 穀聯側이多少라도 總督府의意向을 尊重할境遇에는 再次積極的調停에 進出할것으로보인다

不動産融資補償令
十三年까지延長決定
五月初旬實施?

昭和八年에 制定된 朝鮮不動産融資損失補償令은 第六十七議會에서 日本內地의同補償令이 金融界希望에依하야 十三年까지三個年間 그適用期間의延長이 可決되고 總督府當局에서도 日本內地에追從하야 同補償令을 三個年間延長을 決定하고 目下手續中으로 五月初旬에 實施될모양인데 이에依하야 從來不動産融資銀行도 그不動産貸資金을流動化로活動能力을 더욱助長키로 되엿다고한다

朴泳孝侯爵 財界引退決意
關係會社辭任

朴泳孝侯는京城紡織社長을辭任하고 顧問이되엇스며今回또朝鮮殖産株式會社長도 辭任키에至하얏는데 同侯爵은財界引退를決意하기에至하얏다한다

經濟界消息

▲松原朝銀副總裁渡滿=松原朝鮮銀行副總裁는 二十八日午後三時三十分發渡滿、新京에直行하야 數日滯在한後 南下五月三日朝大連着의 東西신지케―트銀行團을迎하야 同團과同行하야 哈爾賓新京經由 京圖線으로 間島方面을視察後 十九日歸京豫定인데 同銀行團에對하야 京城組合銀行에서는 歡迎會를開하리라한다

今日財界 (卄七日)

正米		(單位圓)
仁川朝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日三等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在來	[illegible]	[illegible]
一斤價	[illegible]	[illegible]
京市中金銀價 金 一匁賣	[illegible]	[illegible]
銀	[illegible]	[illegible]

株式		(單位圓)
朝取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圓)
大阪綿糸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現	[illegible]	[illegible]

商況 (二十七日)

株 大新獨高 暴騰

前場大新高

昨後場下押인듯이어 今前場은 銀의世界最高價現出、金銀高 米棉、印棉高等外電高와 綿絲棉花 人絹等一齊高의好感으로 特히大新은大株新築祝賀의買物로 先騰하야諸株一齊高寄後 大新만은九十七圓三十錢에까지올랏다가 六圓八十錢에大引되어 昨後引보다二圓五十錢 日産百一圓六十錢의高價가잇섯스나伸惱反弛하야結局昨後引보다 東新十錢高인 百五十三圓六十錢、日産三十錢高인百圓九十錢大引、朝新二十七圓七十錢三本同價이엇다。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大新祝賀데이
大株新築落成好感

三十日盛大히擧行할 大株新築落成式을압두고 今前場은 祝賀데이를演出하야 大新이九十圓臺로暴騰되엇다。 東洋第一의 取引所新築이니만큼大株關係者의 熱狂은可히推測할만한것으로 移轉後의新築增加라는것은지금에잇서서 적합생각도 나오지안흘것이며때마츰銀高、銀高等으로 株界前途에 光明을 探한아때인만큼 大新賣의動意는더欣迎될것으로 來月初百圓臺를 豫想하게되엇다

後場休會

後場은例休인데大阪期米가大株休合이엇슴으로産地도氣配不變이엇고二日連休後의米週大勢如何를重視한다

東新의投機性
人氣市勢出現?

鐘紡玉整理後에 示現된東新百五十圓臺固이오 無抑壓上으로新高價를 演出한데이라는材料는 가出現치안는限지금까지云云은不安材料在가지고는 市勢를再次逆轉시키지못할 情勢이다 예서 强氣로서의선第一目標는百六十圓에두는모양으로서 新春以來實株의 價下와株數壓迫으로不振하얏던만큼 强氣의期待가 無理치 안켓스며 東新이 投機性을 恢復한點으로보아 人氣的으로라도 한번은큰소리나는 上市勢가업지안흘것가타야 今後가期望된다는말이잇다

軟派結局煎上?

이번市勢上放暴騰의 材料가一般에게 確然치안코 關係上市勢는올랏시만 民營場으로는實物이만 고도分岐前에 賣하야던側에서依然市勢를輕侮하고 다시꺼구러지기를기다리는모양이나 가진試鍊과 整理를지나서 머처럼上放한이市勢가 여간해서는 東新百五十圓再割가트일이 업겟는만큼 結局은 軟派의總煎上市勢가 示現될것이라는 强氣論이잇다

市場六感

株

頂價、銀高等好材料를 續出로市勢는活氣를 帶하얏고 一氣棒上後도押目가튼 押目이업시 好勢▲터구나 今前場大新은 壯觀、大株新築落成祝賀氣分에大阪은九十七圓 七十錢、當地는九十七圓三十錢에까지 栄騰▲移轉後絕頂眼을 讓氣하야賈케되키前에 環境良化의株界好轉과相俟하야 百圓 소리가먼저나오기쉬울듯▲東新 이 三月八日百五十二圓三十錢을 上廻하고百五十四圓五十錢 에까지뛰어올는데 比하야▲日 産은 비록 百圓大關門은 突破하얏지만伸力이鈍한感이不無 ▲이는倍額增資(二十五日總會에서可決)를依然嫌氣하야 軟派 가기쓰고抑壓하는때문인듯하나 이것도畢竟은 活躍될것이라는 商談▲今朝某取引店主말에依하 면 손님이작구늘기만하니이 市勢가암만해도큰上市勢가나오 고말것이라고云云

米

期待하든好雨는때를 아는드시 旱騷中에 人民을 사랑하는드시 昨夜부 터 죽줄오가始作한다▲모자라 판에도조켓지마는 麥驛三千里 에潤澁을加하게되엿스니 이만 하여도旱騷는半掃!▲비오는소 리에郡城旅舍에서 잠못일우든 强氣의한사람이 傷步로 市場 을나와보니 市勢에는 何等의 影響이업시 돌이혀 反騰하엿 다고 肩上의愁雲은 살아지고 依然笑顔▲果然農家에도樂觀이 거니와買方의陣中에도 欣喜跳 梁▲그러나賣陣에는 四面楚歌 를들으짓는모양이라고 그러나 今日의失敗는 後日成功의前提 인것을記憶해둘일 ▲그런데農 繁期가强迫하여옴으로 産地의 出廻는 去益稀薄할것이오 集 散地의在米는 自然減退될모양 이니 當分買方針을取하는것이 得意일것도갓다 ▲그러나天候 가 好順을繼續하야 今後植付 를完了하는때는 一落도업지안 흘모양

期米 續騰步調 堅强

前場反高

昨後場 阪地廿九圓九十九錢止와共히 廿七圓五十六錢에變當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卅圓〇一錢인 二丁高를揭하고 卄七圓五十九錢인三丁高로寄場을開始한後 阪地九十九錢으로 小弛하엿나가 結局卅圓〇八錢에 止揚함을伴하야 五十五錢으로 六十八錢에 强硬히寄을止하엿다

後場細刻

後場은二十七圓六十八錢에 同價始場後細刻착 에 六錢六十七錢이고 別勝가라 止揚하다

麥雨放數千里
旱害一掃乎

今春以來에 朝鮮의雨量은極히稀 하야 麥作에對한旱騷가적지안 엇섯다 然而本月初旬의降雨로震 家의悲觀을多少緩和하엿스나 南 朝鮮의雨量만히稍潤澤하엿슬뿐 으로 中部以北은 旱騷가依然히 繼續되어 麥作의不良은 姑而莫 論하고 播種期의嫌까지업지아니 하든바 二三日間繼續하든東南風 은 한풍지의 低氣壓을 몰아내 어 昨夜부터 好雨가襲來하야今 日까지 繼續하고잇다 勿論이번 降雨의惠澤은 播種又는 今後植 付의時期에까지 미처려니와 무 엇보다도 不作의數를 免치못하 든麥作에 非常한好影響을 주게 되엇다 實로이번의降雨는 一滴 千金의麥雨라할수잇스며 兼하야 雨脚은數千里에 亘하게되엇스니 이만하여도 旱害는 一掃되엿다 할수잇다 그러나 市勢에는何等 의影響이업시 東阪兩地의 反高

堂島前場堅調
【大阪電話】

常限平穩納會와 株高好感에依한 ...

	先	限
寄	[illegible]	[illegible]
大引	[illegible]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寶買高四百十枚

▲京取四新 [illegible] ▲朝取新 [illegible] ▲宇治新 [illegible] ▲人造羊毛 [illegible] ▲大同電力新 [illegible] ▲東洋拓殖 [illegible] ▲北鮮製紙 [illegible] ▲合同油脂 [illegible] ▲東北鑛山新 [illegible] ▲同新 [illegible] ▲帝國火藥 [illegible] ▲富士木材 [illegible] ▲에다파이新 [illegible] ▲日滿亞麻 [illegible] ▲東亞殖産 [illegible] ▲滿洲세멘트 [illegible]

在米稍漸減退
時期가時期라

朝鮮米는 比較的高價임뿐아니라 日本內地의各市場은 受米又는低級米의收行이 良好하기때문에自然朝鮮米의移入을 要치아니함으로朝鮮米는自然白地의 除出으로 一時反落을 告하얏섯스나其實朝鮮의在米狀態로보면 中農以下의 持米는既히出盡되고남은것은大農家의 所有뿐으로此는絕對期米價時代의到來를期待하고 實情不急하는光景이다 産地의出廻가 米는 昨今精米所方面으로吸收되어在米는 稍漸減退되는모양이다 實로時期가時期임으로 在米는갈사록減少될것이며 兼하야農繁期에 迫近한農村의實物은 又一層稀薄할것임으로 今後植付期에入하기까지買賞成을하는것이 칙아리得意가아닐가한다果如何?

各地當限受渡高

	石 數	價 格
大阪	[illegible]	[illegible]
東京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名古屋	[illegible]	[illegible]
神戶	[illegible]	[illegible]
金澤	[illegible]	[illegible]

當限受渡高

▲渡方 [illegible] ▲受方 [illegible] 石 [illegible] 受渡價格 [illegible] 受渡石數 [illegible]

朝取期米取組高

◆賣方 ◆買方 中限 先限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不變

倂上昨雨로出廻가少하고 定期의小反撥 로 賣方의高價호가로 當用側의買漁 라 前日보다二十錢高

(remaining figures of this market section are [illegible])

仁川同調

日本內地入荏薄 이오 産地의賣物薄으로 當用必 需側이買埋하는程度이며 依然取 引不振의氣配 ... 一等白米二十[illegible]

釜山引締

市場出廻三千叺 持米側은强張하고 低價에는應 치안는一方出廻는 月末關係로高 價買警戒氣味이나 定期의小反撥 ...

大邱閑况

産地所持側이 警戒深甚하야 不動이오 定期는 反撥하나 積極的買氣를보이지안 코、僅히常用小口買物이入하는程 度로 ...

群山强堅

廻着六輛、日米 의買付物로 新規買物이乏하며 淸 算의强堅을보고 日本內地入荏가 到來되고 當用側의適價買散見으 로前日보다 十錢高唱인 ...

木浦不勢

淸算의好調를보 고日本內地買注文이 入하야移出 側의買氣를 誘致하얏스나 極端 의賣物薄으로 取引이不振하고一 般으로買方이 高價付買는警戒 ...

南浦小高

産地持米側은賣 勢底堅으로보아 賣急지안코定期 의昂高로 氣配五錢高이나 取引 은依然無狀態인 ...

期 米 卄七日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實物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正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朝鮮內各地正米 [illegible]

金白・銀金 賣 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〇番地(小廣場側)
電話光化門五二八番
振替京城五五四番
代金引換販賣 郵送料先金
地方注文

金融 卄七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卄七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卄七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大豆粕市勢 [illegible]
◆鑛油沖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鑛粹粕沖價 [illegible]

商品 卄七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東京深川在米高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日本各地廻米 [illegible]